

책

2022

서울국제도서전

디렉토리북

Book Fair 2022

Seoul International

Directory Book

2022

서울국제도서전

디렉토리북

Book Fair 2022

Seoul International

Directory Book

2022
서울국제도서전
개요

2022년은 코로나19를 극복한 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멈추어 서 있는 이 지점에서 어디론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느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게 될까요? 서울국제도서전은 이 질문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반걸음'.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게 땀, '반걸음'이 앞으로 나갈지, 뒤로 물러설지, 혹은 비틀거리면서 다른 행로를 잡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걸어온 발자국을 되돌아보고 가까운, 혹은 그것에서 이어져 멀리 떨어진 미래에 대한 생각과 상상을 책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넘어 눈앞에 닥칠 일에 대한 준비도 책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안에 지혜를 담아 둔 필자들, 거기서 영감을 얻어 예술적인 작업을 한 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려고 합니다. 비행기가 끊겨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지 못했던 외국의 손님들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내디딜 '반걸음'이 어디에, 어떻게 자국을 남길지 가능해 보려고 합니다.

순자(荀子)의 '규보불휴 파별천리(跬步不休 跛鼈千里)'는 반걸음으로 걸어도 쉬지 않으면 느린 거북이도 천리를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인간과 자연의 한계 안에 있고, 움직임도 지루할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썩어 쌓이면, 그것은 천지개벽의 큰 변화가 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 내디딘 걸음은 정말 작았지만, 이 걸음이 인류에게는 거대한 진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내딛는 반걸음이 중요합니다. 이 반걸음 위에 쌓을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이 예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일상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반걸음 바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몰고 온 마구잡이 개발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를 되돌릴 것이고, 심화되는 불평등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가득한 곳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뜨겁게 포옹하겠지만 디지털 기술은 멀리 있는 우리를 더 자주 만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 공유한 생각들이 더 나은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반걸음'이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 좌우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힘에 부치더라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We hope that 2022 goes down as the year that we defeated COVID-19. What form the future will take, we do not yet know, but we will move from our current position. We cannot know in advance how big the movement will be. It might be very slow. But as long as we are alive, life goes on, unceasing. Life can only exist amid the constant flow of matter and energy. And so we move. Where is this movement taking us? And how do we get there? These questions inspired the theme of this year's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One small step".

We do not know yet whether our one small arduous step will send us forward, backward, or stumbling in some other direction. We look back upon the steps we have taken and believe that books will help us contemplate and imagine our futures, both near and distant. We also think it appropriate that our preparations for the unimaginable should begin with books. We hope to bring together authors who have filled books with wisdom and artists who have found inspiration in their writing. We will also welcome international guests who were unable to visit last year's fair due to restrictions on overseas travel. Together, we aim to figure out where our one small step will take us and what footprint it will leave.

The Chinese philosopher Xunzi once said that even a slow tortoise taking small steps can travel a thousand miles provided it does not give up. Bound in its scope by natural and human limitations, our movement can be tediously slow. But, as the years pile up, this movement can bring about transformational change. Neil Armstrong's first step on the moon was small, but it was the beginning of "one giant leap for mankind". Thus, the importance of the one small step we are about to take. Forecasting a future built upon it will lead us to establish routines that are at once similar yet different to before.

We believe that beyond this one small step lies a place where we will work to counteract worsening inequality, reverse climate change, and combat the unrestricted development that has brought about not only climate change bu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We will warmly embrace each other, but digital technology will also enable us to meet more frequently even

from afar. We want to believe that the thoughts we share in these encounters will guide us to a better world. Needless to say, we are not so naive as to think that these goals will be achieved easily. In taking our one small step, we will sometimes lose ground and at other times falter. But as difficult as it may be, unless we move forward, we have no future.

관람안내	2022년 6월 1일(수) – 5일(일) 코엑스 A홀	Wed.1 – Sun.5 June, 2022 Hall A, COEX, Seoul
	관람 시간 1일(수) – 3일(금) 11:00 – 20:00 4일(토) 10:00 – 20:00 5일(일) 10:00 – 17:00	Opening Hours Wed. 1 – Fri. 3 11:00 – 20:00 Sat. 4 10:00 – 20:00 Sun. 5 10:00 – 17:00
	*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 입장 마감	
주요 프로그램	주제전시 〈반걸음 – One Small Step〉	Theme Exhibition 〈반걸음 – One Small Step〉
	기획전시 BBDK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Best Book Design from Republic of Korea
	특별전시 디지털북 〈책 이후의 책〉	Book in the post-media age
	책캐스트 · 주제강연 및 세미나 · 해외 작가 · SF 강연 · 시대의 문학	Book Cast (Lecture, Seminar, Author Program) New Release in SIBF 2022 Gust of Honour 2022 Colombia
	SIBF 책 · 리미티드 에디션 · 신간발표 도서 〈여름, 첫 책〉 · 리커버 도서 〈다시, 이 책〉	Honorary Ambassadors Kim Young-ha(writer) Eun Heekyung(writer) Colson Whitehead(writer)
	주빈국 콜롬비아	
	홍보대사 김영하(소설가) 은희경(소설가) 콜슨 화이트헤드(소설가)	
크레딧	주최 대한출판문화협회	Hosted by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주관 서울국제도서전, 코엑스	Organized by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COEX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Korean Publishing Foundation

국내
참가사

가위바위보 출판사는 '기록, 일상, 공유'라는 테마에 집중해, 독특하고 다양한 시도를 담은 필사와 기록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학가들의 문장모음집에서부터 고전명작 필사책, 영어필기체 책 등 취미와 자기계발을 겸하는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책을 통해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록하고 필사하는 일상의 취미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gbbbooks(rock-paper-scissors publisher) is focused on the theme of the recording and sharing of our daily lives and publishes handwriting books and diaries with unique and diverse concepts. We would like to publish books where readers can actively experience literature.

T 02-3153-1105
F 02-6008-5011
gbbbooks@naver.com

03925 서울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삼암동, 서울산업진흥원) 5층 8호
8ho 5F, 400,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Korea

감 매거진은 건축재료에 대해 깊고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는 원토픽 매거진입니다. 한 권에 한 가지 건축재료를 주제로, 재료가 건축에 쓰이는 과정 전반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반인 모두가 재료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GARM Magazine is a one-topic magazine that proposes a deep and new perspective on architectural materials. With the theme of one architectural material per one volume, we introduce the overall process of material being used in architecture. Based on this, we help architects, interior designers, and the general public to choose and apply materials appropriately.

T 02-5374536
info@8apple.kr
www.garmmagazine.com

0603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36, 3층
36, Dosaan-daero 25-gil,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고려(Koryo)수도 開京(개성 Kaesong)은 태조왕건이 919년에 정도(定都)하여 발전하였으며 천년 전 중세시대에도 개성인삼을 페르시아까지 교역한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한국전쟁 후 분단과 함께 판문점을 기준으로 나뉘면서 남측에서는 잊혀진 도시가 되었지만, 지난 2013년 6월 역사적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UNESCO World Heritage Site’ 등재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개성시는 이제 “유네스코 자연유산” 보전의 과제로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개성 문화원은 경기만, 서해평화수역, 한강하구 임진강, 개성 옛길 일대, 생태 습지의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고, 람사르습지 등재를 촉구하며, 천연기념물 두루미 서식지 보전과 군사 시설화로 황폐화된 분단의 경계에 나무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Kaesong, the capital of Koryo, developed as the capital of King Taejo in 919.

After the Korean War, it became a forgotten city on the south Korea as it was divided based on Panmunjom after the Korean War. The task of preserving the “legacy” lies before us.

The Kaesong Cultural Center urges the designation of national parks for Gyeonggi Bay, the West Sea Peace Zone, the Kaesong Old Road area, and calls for registration as a Ramsar Wetland, the border between divisions that have been devastated by the conservation of the crane habitats as a natural monument. We are going to plant trees.

저작권 담당자 민승준(Min Sngjun) / 010-7354-9992 / minsngjun@naver.com

T 02-3414-3004
minsngjun@naver.com
www.kaesong.kr

07505 서울강서구 하늘길 210 (영항동, 한국항공화물청사) 301호
3F Gimpo Intl Airport Freight Terminal, 210, Haneul-gil, Gangseo-gu, Seoul, Korea

고스트북스는 대구에 자리한 작은 서점이자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독립출판사입니다.

서점의 온-오프라인에서는 단행본, 독립출판물, 해외 서적, 작가들의 프린트와 굿즈 등을 판매합니다. 또한 북 토크와 전시 그리고 워크숍 ‘진메이킹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메이킹클래스’는 총 5주의 시간 동안 자체적인 콘텐츠를 책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워크숍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Ghost Books is not only a small bookstore in Daegu but also an independent publisher.

On the on/offline bookstore, we deal with popular book, independent publication, overseas book, and some prints and goods.

We conduct book events such as book talk, small exhibition, and run “zine-making class” that make small publication based on their own contents.

T 053-256-2123
F 070-7821-5519
ghostbooksinfo@gmail.com
www.ghostbooks.kr

41913 대구 중구 경산강연길 212, 3층
3F, 212, Gyeongseonggangmyeong-gil, Jung-gu, Daegu, Republic of Korea

고요한소리는 부처님 그분의 본래 가르침을 되살려 궁구하고, 실천하고,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고요한소리는 1987년 근본불교 빠알리(P LI)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역경사업을 발원하면서 출발하였고, 1992년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고요한소리는 빠알리어 경전을 이 시대의 감각에 맞게 번역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전번역의 준비를 위해서 고요한소리는 스리랑카의 불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근본불교의 소개를 위해 펴낸 출간물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엄선해서 번역하고 출간하고 있습니다.

The Calm Voice Society was established to rediscover, scrutinize, practice and promote the very teachings of the Buddha. The Calm Voice Society was established in 1987 to realize its commitment of launching the project of translating into Korean the Pali canons of the original teachings of the Buddha. Its incorporation was followed in 1992 in Seoul, Korea. The Calm Voice Society has it as its aim to translate the Pali canons into the language which becomes relevant and resonating to the lives of the contemporary world.

T 02-739-6328
 F 02-723-9804
 calmvs@hanmail.net
 www.calmvoice.org

03145 서울종로구 인사동길47-5 (인사동, 사단법인 고요한소리)
 CALM VOICE SOCIETY, 47-5, Insadong-gil, Jongno-gu, Seoul, Korea

상상을 뛰어넘는 장르 스토리의 창작 공간, 고즈넉이엔티입니다. 장르 문학이 주는 쾌감과 감동을 선사하면서도 동시대의 통찰이 담긴 이야기를 책으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르 소설이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출발하여 더 나은 미래를 예감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작의 모든 과정에 걸쳐 작가와 손발을 맞추어 이야기를 제작하며, 완성된 작품이 활자 안에 머물지 않고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매체로 변모하게끔 돕습니다. 이렇게 트랜스미디어를 통해 함께 만들고 확장되는 작품들은 독자들 곁에서 오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고즈넉이엔티는 이야기의 세계 안에서 유명한 창작자와 독자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GOZKNOCK ENT is the birthplace of genre stories that go beyond imagination. We believe that fiction is not just a fun story, but has the power to sense a better future, twisting the existing norms in a cool way. We also believe that stories built together go further. Therefor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production, the story is created in the cooperation of the writers and producers. We also support our novels being transformed into a variety of media rather than staying in print. As always, GOZKNOCK ENT is waiting for the creators and readers who will swim through the world of stories.

T 02-6269-8166
 F 02-6166-9199
 gozknockent@gozknock.com
 www.gozknock.com

04521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203호
 1203, 40,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공예가는 '비어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예술의 조각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공예가의 '공'은 만들 공(工)이 아닌 빌공(空)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만들어 채움(工)으로써 한결 빛나는 비움(空)의 가치를 이해하고, 용도에 알맞은 꼴을 찾아 제안합니다.

Gongyega started with the mission of "Filling empty spaces with pieces of art that harmonize with the space". The Gong of Gongyega does not refer to 'Gong (工)' as in work but refers to 'Gong(空)' that means empty. By filling the empty spaces with items made by hand (工), it lets us understand the radiance of the value of emptiness (空), and allows us to create new suggestions that match the purpose.

T 010-4009-8698
info@gongyega.kr
gongyega.kr

03765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8-9 (대현동) 2층
2F, 88-9,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오늘을 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1인 출판사입니다. 에세이, 시집, 그림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출간했으며 해외 수출에 관심이 많아 좋은 콘텐츠와 작가 발굴에 힘쓰며 믿을 수 있는 출판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푸 아일랜드>는 어린이 오페라로 제작되어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2020년부터 매년 공연하였습니다.

1인 출판사임에도 유아부터 장년층을 겨냥한 책들을 출간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아 수출 가능성 있는 책은 번역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찾아가는 도서전에도 참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벨기에, 북미 도서전 참가)

KONG publishing company makes the story of you living today into a book. We have published books in various fields such as essays, poetry, and picture books, and are interested in exporting overseas.

Although it is a small publisher, it has readers of all ages by publishing books aimed at children and seniors. We are interested in overseas expansion, so we are constantly working on translating books that can be exported. We also have a history of participating in an online book fair. (Russia, France-Belgium, North America book fair participation)

T 010-3305-6008
F 0303-3444-7008
thekongs@naver.com
www.instagram.com/kong_books

08031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75길 10-2 (신월동) 401호
401, 10-2, Nambusunhwan-ro 75-gil, Yangcheon-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공가희(Kyle GH Kong) / 010-3330-5600 / thekongs@naver.com

과학콘텐츠그룹 갈다는 누구나 즐겁게 과학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과학적 사고가 튼튼히 뿌리내린 사회를 꿈꿉니다.

- 2018년, 과학 지식의 충실한 매개자인 책을 함께 읽기 위해 '과학책방 갈다'를 삼청동에 열었습니다. 과학책 저자를 모신 북토크와 강연이 열립니다. 2019년부터 전문가들이 매달 새로 나온 과학책 중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을 골라 서평을 쓰고 '갈다가 주목하는 신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좋은 과학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 과학책 독서를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해 좋은 과학책을 골라주는 과학서평 계간지 《SEASON》를 발행합니다. 어린이와 청년, 중년, 시니어 각 세대에 필요한 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서평, 칼럼, 정보, 인터뷰 등을 담았습니다.

Science Content Group Galdar (named after Galileo and Darwin) is focusing anyone who can enjoy science as a culture.

We opened Science Bookshop in 2018. The bookshop offers author events, Book Clubs and various programs related to science books.

We're introducing good science books for adults and children every month.

We publish a science book review magazine 《SEASON》 that helps beginner. It targets specific generation each season.

T 02-723-018
galdarbookshop@gmail.com

03050 서울 강동구 삼천로10길18 (삼천동) 1층
1st floor, '18, Samcheon-ro-10-gil, Jongsu-gu, Seoul, Korea

미칠광, 전할(이야기) 전, 모임(회사) 상호는 거창하지만 사실 전속작가 겸 편집장 겸 영업부장 겸 아르바이트생인 홍유진씨 달랑 한 명으로 구성된 독립출판 레이블. 첫 책 표지를 만들 때, 80-90년대생 남녀 양쪽으로 흔한 '유진'이란 저자명이 남과 겹치거나 눈에 잘 띄지 않을까 봐 가상의 출판사 로고를 만들어 붙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렇게 2016년 이래로 몇 년간 유명회사로만 존재하다가 2019년 초에 출판업 등록으로 1인 출판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지만, 제멋대로 작업하는 본질만큼은 여전합니다.

T 010-8866-9311
F 0504-314-0120
rati_goo@naver.com
www.instagram.com/madtalecompany

05338 서울 강동구 진행도로31길26, 208호
208, 26, Jinhwangdo-ro 31, Ga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국립과천과학관은 다양한 과학전시 및 교육·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과학 대중화 기관입니다. 과학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전시를 보는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머리로 의심하고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관람객이 과학적 소양을 키우고 과학문화를 느끼는 즐거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과학원리체험전시물을 개발 제작하여 2022 서울 국제도서전에서 전시를 선보입니다.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is the largest science popularization institution in South Korea with various science exhibitions and educational and cultural contents. Science is not learned by reading books, listening to lectures, and watching exhibitions. It is to doubt things with brain work and learn with your hands and even body. The museum strives to fulfill its role as a place for visitors to develop scientific knowledge and feel scientific cultur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develops and produces movable scientific principle experimental exhibition materials for interesting experience of both children and adults. We Showcase exhibits in the 2022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T 02-3677-1525
F 02-3677-1369
haerang2@korea.kr
www.sciencecenter.go.kr

13817 경기 과천시 상해벨로 110 (마천동,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110, Sanghaebel-ro, Gwacheon-si,
Gyeonggi-do, Korea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눈에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생태 연구·전시·교육의 공간입니다.

국립생태원 출판부는 소중한 생태정보와 이야기를 엮어 유아부터 성인, 전문가에 이르는 다양한 독자를 위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교육·전시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상이 읽을 수 있는 생태동화, 정보도서, 취미·실용서, 연구총서 및 뉴미디어 기술과 결합한 전자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NIE) is a place for ecological research, exhibition, and education where one can observe and experience the five major climates(tropical, dry, temperate, continental, and polar) and the animals and plants that live in them.

NIE Press creates books for various readers, from children to adults and experts, with valuable ecological information and stories. We contribute to the spread of eco-culture through the p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pub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education, and exhibition projects of the NIE.

T 041-950-5999
F 041-950-6100
press@nie.re.kr
www.nie.re.kr

33657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송내리)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1210, Gaumgang-ro, Maseo-myeon,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Korea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 교류기관입니다.

라이브리리파크는 아시아 문화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전시, 도심 속 만남과 휴식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 역사에 대한 기본 자료와 방대한 아카이브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리리파크는 이러한 자료를 직접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The Asia Culture Center (ACC) is an international arts and cultural exchange organization that produces new, future-oriented results through the convergence of Asia's past and present arts and culture with innovative ideas and beliefs.

Library Park offers a new model of space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by combining various functions including a library, an archive, and a museum.

In this novel platform, visitors can access, admire, and immerse themselves in various books and materials.

T 1899-5566
www.aacc.go.kr

6148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광산동, 아시아문화전당)
The Asia Culture Center/ACC,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Korea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개관한 이래,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각종 지식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남긴 기록물에서부터 오늘날의 온라인 출판물까지, 빠짐없이 수집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또한 사고 포화에 대비한 국가문헌 보존 공간 확보와 정보 매체 다변화에 따른 매체별 보존서고 구축을 위해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와 역할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가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지식을 기억하는 공간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대를 넘나드는 지식문화유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5,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as collected, preserved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domestic publications and various information to provide to the public. From records created and preserved by our ancestors to contemporary online publications, it is the library's mission to collect, preserve, and pass them down to future generations. We hope you encounter knowledge, culture, and heritage without being limite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here the lives of people in Korea and national knowledge are remembered.

T 02-590-6267
F 02-590-0620
book2@korea.kr
www.nl.go.kr

0667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Korea

꿈을 파는 출판사, 국일출판사
1978년 설립 이래 1,200종 이상의 책을 출간한 믿을 수 있는 출판사

(주)국일출판사는 단행본 브랜드 ‘국일미디어’, 경제경영서 브랜드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아동 브랜드 ‘국일아이’로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는 종합출판사입니다.

주요 도서로는 『꿈꾸는 다락방』, 『무지개 원리』, 『현명한 투자자』, 『월가의 영웅』, 《Job》 시리즈, 『명탐정 셜록홈즈』 등이 있습니다.

국일출판사에서 전하는 ‘꿈·희망·사랑·인생’의 이야기가 독자들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유용한 지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일출판사는 독자 여러분이 꿈과 희망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Kookil Publishing Company
a reliable publisher that has published more than 1,200 book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8

Kukil Publishing Co., Ltd. is a comprehensive publishing company that publishes books in various fields under the book brand Kukil Media, the economic management department brand Kukil Securitie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the children's brand Kukil Eye.

Major books include Dreaming Attic, Rainbow Principles, Wise Investors, Wall Street Heroes, Job series, and Sherlock Holmes.

We hope that the story of “Dream, Hope, Love, and Life” delivered by Kukil Publishing will

저작권 담당자 임상국(YEIM SANGGUK) / 010-3811-8789 / ivision100@naver.com

종류, 아동

T 02-2237-44523
F 02-2237-44524
kugil@ekugil.com
www.ekugil.com

04614 서울 중구 정충단로87길2 (정충동)가, 피인빌 빌딩) 2층
2F, 2, Jangchungdan-ro 87-gil, Jung-gu, Seoul, Korea

예술, 음악

1995년에 설립된 재즈, 클래식 음반사입니다.
듣기만 하는 음악에서 벗어나 보고 듣는 음악문화를 선도합니다.
세계의 유명일러스트 작가들과 함께 작업한 일러스트 아트북이 들어간 음반을 제작합니다.

반대로, 음악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여 타 출판사들의 좋은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GOOD / MONOPOLY 두개의 레이블로 600여종의 일러스트책들과 음반들이 발매되었으며, 1000여종의 엘피(LP)도 제작, 수입하고있습니다.

엘피(LP)와 아트북 음반들은 교보문고핫트랙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지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Founded in 1995, it is a jazz and classical record company.
away from just listening music

Lead the music culture of watching and listening.

I worked with famous illustrators from all over the world.

Produce an album with illustrated art books.

On the contrary, as a music coordinator,

It's good to be with good books from other publishers.

They also supply music.

GOOD / MONOPOLY

About 600 kinds of illustration books and albums have been released under the two labels, and about 1,000 kinds of LPs have also been produced and imported.

T 031-577-4663
order@goodco.co.kr
www.goodco.co.kr

12269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적실로 46-29 (도곡리)
goodinternational, 46-29, Sooksil-ro, Wabu-eup, Namyangju-si, Gyeonggi-do, Korea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연의 정원에서 작가와 독자가 맘껏 웃고 위로 받으며 따뜻한 행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Founded in 2004, we have been publishing picture books with the mindset of a gardener growing a beautiful garden. We hope the readers are able to experience joy and happiness through the garden we have created.

아동, 문학

T 070-8690-8658
F 070-4850-8338
gloyeon@naver.com
gloyeon.com

07217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길 11 (당산동4가, 당산 SK V1 center) 디블유동 1104호
W 1104, 11, Dangsan-ro 4i-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오승현(SEUNGHYUN OH) / 010-2253-1671 / shoh25@hanmail.net

역사, 문학

우리나라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을 제작하는 독립출판사입니다. 현재까지 총 8종 책을 제작했으며, 모두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공주의 모든 것을 담은 책 2종(화주집요-조선공주편, 현예집요-고대고려공주편)과 우리나라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역사 이야기를 담은 책 6종을 제작했습니다.

KUMRIM is Hidden stories of our history books making an indie publisher. To date, produced a total of eight books, and all our nation's history is not well known that conveys information.

We have produced two books about everything about the princess of Korea and six books about history hidden in our history.

T 010-4117-2159
teamkumrim@gmail.com

06802 서울 서초구 천물마을길 23-41 (신원동) 201호
20tho, 23-41, Cheongnyongmaeul-gil, Seocho-gu, Seoul, Korea

김영사는 1979년에 시작하여, 82년에 '김영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출판을 통해 사람이 사는 바른 길, 행복한 길을 걷고, 실험하고, 널리 나누기 위한 설립정신을 확립하였습니다. 종합출판사 김영사는 새롭고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 첨단 지식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전문지식의 대중화, 대중지식의 고급화'를 모토로 인문, 문학, 경제경영, 교양과학, 환경, 철학, 종교, 아동·청소년 등 각 분야에서 4,000여 종의 책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김영사의 도서목록이 곧 양서목록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언제나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책, 자신 있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나갑니다.

In 1979, Gimm-Young Publishers, Inc. was established for people to experience and spread a right and happy lifestyle. As a result, by 2022, Gimm-Young Publishers, Inc. has grown into a comprehensive publishing group.

It is a major publishing company representing Korea, publishing a total of 4,000 books ranging from literature, humanities, liberal arts and sciences to economics and business, pragmatics, religion, children and youth.

T 02-745-4823
F 02-745-4826
bestbook@gimmyoung.com
www.gimmyoung.com

10881 경기 파주시 문발로 197 (문발동, 김영사)
Gimm Young Publishers Inc. 197 Munbal-ro, Paju-si, Gyeonggi-do, Korea

까만개 프레스는 2015년 서울에서 시작한 출판사입니다. 문학과 음악, 미술, 디자인 사이에서 유머와 유희적 가치를 즐기며 책을 만듭니다. 첫 그림책 『두 번 짚은 까만 개』를 시작으로 『탁자 위에 달걀이 있다』, 『We Can't Surf』, 『이른 여름! 한여름! 늦여름!』, 『요리조리 달걀 요리 조리집』 등을 냈습니다. 활기찬 사람들과 재미있는 일을 합니다.

Kkamanke Press is a small publisher founded 2015 in Seoul. We mainly focus on art books, records and other interests, without a sense of seriousness, in images, text, sound, humor.

T 010-8877-2936
F 031-8038-4308
kkamanke@kkamanke.kr
www.kkamanke.kr

03371 서울 은평구 진관1로 21-10, 상가동 210호
210ho, 21-10, Jingwan 1-ro, Eunpye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도서출판 꿈공장플러스는 작가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더 나아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 곁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꿈공장플러스는 400명 이상의 작가를 발굴하여 함께 꿈을 실현하는 데에 발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도서전은 물론, 저자 북토크, 꿈공장플러스 동창회 등을 통해 저자와 독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꿈공장플러스는 작가의 꿈을,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Dream Books, book publishing company, wants to be a best supporter for those who want to achieve their dreams of becoming a writer and furthermore, have a good influence on society.

So far, we has discovered more than 400 writers and are working together to realize their dreams.

In addition, we offer a various book exhibitions and book talks for their communications.

Dream Books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with people who want to achieve their dreams of becoming a writer and furthermore, their dreams in life.

T 02-6012-2734
F 031-624-4527
ceo@dreambooks.kr
www.dreambooks.kr

02717 서울 영등포구 보국로167길 43-20 (영등동) 1층
1F, 43-20, Bogungmun-ro 167-gil, Seongbuk-gu, Seoul, Korea

꿈꾸는 별 책방은 나와 같은 날 태어난 작가의 책을 블라인드 데이트 북으로 소개하는 '생일책'을 만나는 서점입니다.

계속해서 작가들의 생일을 모으고 있는 꿈꾸는 별 책방은 2022년 현재 1800여 명의 작가 생일을 모아 2400여 권의 생일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마다 소개된 문장과 키워드를 통해 같은 날짜의 책 중에서 원하는 생일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꿈꾸는별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동네서점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집과 에세이집, 책방 소재지인 광명시의 작은 골목들을 담은 화집을 출간하였습니다.

My bookstore sorts books by author's birthday.
Each book is sorted by the author's birthday.
For example, if you want a book on December 10th, you can see the book by E. H. Shepard. He is the author of Winnie the Pooh.
To the authors : Can you tell me your birthday?
You can show your book to people born on the same day as you.
— This information is only available to people who buy your book.

T 02-2612-9188
F 002-2618-0533
onstar@starbookshop.com
starbookshop.com

14286 경기 광명시 광명로893번길 13-1 (광명동) 1층
Dreaming Star Bookshop, 13-1, Gwangmyeong-ro 893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Korea

책고래는 그림책,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단행본 출판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글 씨앗, 그림 씨앗을 정성껏 뿌려 함께 기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함께 기다립니다.

Book Whale is a publishing company of picture books,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Spray writing and painting seeds carefully for children to grow them together and wait together until beautiful fruits come out.

T 02-6083-9231
F 02-6083-9236
dk@dreamingkite.com
www.dreamingkite.com

0677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2길23-4 (양재동, 동방빌딩) 301호
dreamingkite, 3F, 301, 23-4, Gangnam-daero 12-gil, Seocho-gu, Seoul, Korea

나는별은 모두가 하늘 높이 나는 별이 되길 꿈꾸는 출판사입니다. 특히 아이들 마음속에 빛나는 별 하나씩을 심어 주고, 이 별이 하늘까지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36종의 어린이 책과 그림책에 관한 메타 도서도 출간하였습니다. 전자책도 점차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별의 주력 분야는 그림책입니다. 국내외 그림책, 픽션과 논픽션 그림책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어린이 인권도서, 서울시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전문기관에서 여러 책들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 과학동화 《로봇 큐리와 별별 과학》 시리즈가 저작권 수출도 되었습니다.

FlyingStar Books is a publisher that dreams of us all becoming stars flying high in the sky.

We want to plant a shining star especially in the heart of each child and wish for the star to fly up to the sky.

Since 2014, we have published 34 kinds of children's books and special books about picture books for adults.

We are also getting more and more e-books.

Our main focus is on picture books.

We cover both domestic and foreign picture books, fiction and nonfiction picture books.

Many of our books were selected as recommended books by book institutions, public libraries and etc.

T 070-8849-5340
F 0505-300-2727
flyingstarbook@naver.com
www.instagram.com/flyingstarbook

13474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10번길 14 (판교동) 101호
13474 14, Pangyo-ro 210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저작권 담당자

김수현(SooHyun Kim) / 010-8925-5340 / flyingstarbook@naver.com

나선프레스는 현실에 문제 제기하고 미래를 위한 가치를 탐색하는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 실천을 어린이, 청소년 독자와 나눕니다.

Science Content Group Galdar (named after Galileo and Darwin) is focusing anyone who can enjoy science as a culture.

We opened Science Bookshop in 2018. The bookshop offers author events, Book Clubs and various programs related to science books.

We're introducing good science books for adults and children every month.

We publish a science book review magazine 《SEASON》 that helps beginner. It targets specific generation each season.

T 010-2999-7174
rasunpress@gmail.com
www.instagram.com/rasunpress

04549 서울 중구 인현동 1가100-4, 403호
403, 35, Eulji-ro 16-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1888년 지리 지식의 확장과 보급을 위해 미국에서 설립된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는 세계 최대 비영리 과학, 교육 기관입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인류가 지구를 아끼고 돌볼 수 있도록 이깁니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현재 1만 여건이 넘는 과학, 탐사, 교육, 환경 보존 프로젝트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록을 넘어 지구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목숨 건 탐사를 지속하며,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알리고 노력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은 특별합니다.

세계 최고의 사진작가와 탐험가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찍은 작품입니다. 환경과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탐험과 호기심, 이 모든 것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국제도서전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최고의 사진작가들이 찍은 화보집도 보실 수 있습니다.

T 02-739-7106
F 02-723-0974
tne0224@naver.com
www.natigeokorea.com/magazine

03173 서울 종로구 세종안로3길 30 (내수동, 대우빌딩) 북합동 604-3
604-3, 30, Saemunan-ro 3-gil, Jongno-gu, Seoul, Korea

노란상상은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노란색'에, 아이들의 상상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그림책 전문 출판사로, 130여 종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문어 목욕탕』, 『오늘 상회』등 노란상상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책을 만들어서, 어린 독자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Noransangsang is meant to support and support the imagination of children in 'yellow', symbolizing the beginning and the growth.

Yellow Imagination, a book publishing company that started in 2010, is a publishing company specializing in book publishing, including more than 130 kinds of books, "Octopus Bath", "Today shop"

The noransangsang always strives to create a book that can be read by the mind, not only by eyes, but also by lightening the eyes of young readers and raising the power of thought.

저작권 담당자 010-4216-0953 / yellowbooks777@gmail.com

T 02-797-5713
F 02-797-5714
yjyune3@hammail.net

07207 서울영등포구 양평로 157 (양평동57가, 선유도 투웨이 퍼스트벨리) 1311
1311, 157 Yangpyeo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늘보의 섬은 모든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듭니다.
그림책의 캐릭터와 이야기, 그림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며 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loth Island makes picture books that all generations can enjoy together.

We are expanding the scope of books by creating various contents based on the characters, stories, and pictures of picture books.

T 070-4610-4380
sloth_island@naver.com
slothisland.net

10273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408-21 (고양동, 청구상가) 301호
301, 408-21, Dongheon-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저작권 담당자 이소연(Soyoun Lee) / 070-4610-4380 / sloth_island@naver.com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과 실사구시를 시대정신으로 담아 2004년 2월 첫 출판을 내디뎠습니다.

다산북스는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국내 TOP 10 출판사 반열에 올랐으며, “The Joy of Story”라는 미션 아래 창조적 컨셉 능력을 발휘하여 출판 산업을 이끄는 선도 기업입니다.

DasanBooks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2004 based on the desire for “shilsagushi” (search based on truth) and “aemin-mind” (love for the people).

Dasan Books quickly reached the top ten list of national publishers and with the creative mission concept of “The Joy of Story” is now a leading publisher company.

저작권 담당자 한승빈(Seungbin Han) / 010-5475-4516 / sbhan@dasanbooks.com

T 02-704-1724
F 02-703-2219
dasanbooks@dasanbooks.com
www.dasan.group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490 (문발동)
dasanbooks, 490,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다시서점은 2014년 5월 18일 오픈하여, 서점과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온-오프라인의 기획과 행사를 통해 시화(詩和)할 수 있는 도서를 선보입니다.

DASIBOOKSHOP opened on May 18, 2014 and is holding various art and cultural projects and events. DASIBOOKSHOP store presents books that can be poetic imagery through on- and off-line planning and events. 'DASI' is korean speaking 'Again'. DASIBOOKSHOP hope we can meet again. see you again.

T 070-4383-4869
F 050 7075 5164
dasibookshop@nate.com
www.dasibookshop.com

07605 서울 강서구 양천로24길 113 지하1층
B1, 113, Yangcheon-ro 24-gil,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2015년 9월에 설립되어 2017년 9월에 첫 책을 내기 시작해 2022년 지금까지 약 30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그림책과 예술서, 사유의 폭을 넓히는 인문교양서를 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반짝이는 순간 뒤에 존재하는 고민의 시간들, 보통의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묵묵하게, 느리지만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Danchu Press was founded on September 11, 2015, and started publishing its first book in September 2017, and has published 30 books so far. We have been trying to produce picture books, art books that give comfort and strength, and a humanities liberal arts book that broadens the scope of thought. I think it's worth dealing with the stories of those who live at their own pace, silently, slowly but silently, cherishing the days of trouble, ordinary days that exist after the sparkling moment.

T 02-8841-7788
F 0505-841-7788
hello@danchu-press.com
www.instagram.com/danchu_press

04405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0 (이태원동, 이태원로200) 610호
610, 200, Itaewon-ro, Yongsan-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김인정(injung Kim) / 010-3330-3861 / injung.kim@danchu-press.com

닷프레스는 사진가와 디자이너, 북아티스트가 모여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북프로젝트 스페이스 '다크룸'과 책제작 공방 '닷북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닷미술관'을 함께 운영합니다. 사진예술과 출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예술적 나눔을 실천하는 창작 공동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총 80여 권의 책이 출판되었고, 뉴욕 아트 북페어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행사를 통해 널리 소개되고 있으며, 뉴욕 공립 도서관(NYPL), 뉴욕 국제 사진센터(ICP), 스탠포드 대학 도서관 등 해외 주요 기관에 다수의 출판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Datz Press is an art book press that works with photographers, designers, and bookmakers to create, publish, and exhibit books centered on photography. We provide a collaborative platform for artists and art lovers through publications, exhibitions, and arts education programs through Datz Press, Datz Museum of Art, Datz Books, D'Arkroom.

Over the past decade, we have published more than 80 books which have been housed in major global institutions such as the New York Public Library (NYPL),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y (ICP), and the Stanford University Library and more.

T 02-447-2581
datzpress@datzpress.com
www.datzpress.com

05035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71, CS Plaza B102
B102 CS Plaza, 471, Achaesan-ro,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05035

대원씨아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전문회사로서 그동안 《슬램덩크》, 《원피스》, 《포켓몬스터》, 《열혈강호》, 《짱》, 《반지의 비밀일기》 등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작품들을 통해, 만화가 각광 받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끌어 올리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문화에서도 '글로벌 보더리스(Global Borderless)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저희 대원씨아이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히 기존의 만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와 연관성이 높은 차세대 사업군을 배치하여 동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Daewon C.I. Inc. published South Korea's first comic magazine named Champ, introducing many notable works. I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omic book publication market in Korea. Based on the power of its IP contents, Daewon C.I. is making a remarkable exporting performance by developing the numerous marketable and appealing webtoons and executing MOUs with overseas partners in China, France, etc. It is accelerating the expansion of the content market and business with the long-term partnerships with the leading content companies which are developing and distributing high-quality contents.

T 02-2071-2031
 F 02-797-1023
 webmaster@dwci.co.kr
 www.dwci.co.kr

04379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5길 9-12 (한강로3가)
 DAEWON CI, 9-12, Hangang-daero 15-gil, Yongsan-gu, Seoul, Korea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보센터는 출협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한 출판사 밀착 관리로 57년간 납본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중이며, 대한출판문화협회로 납본을 하면 양 기관(국립중앙도서관 / 국회도서관)에 동시에 납본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Datz Press is an art book press that works with photographers, designers, and bookmakers to create, publish, and exhibit books centered on photography. We provide a collaborative platform for artists and art lovers through publications, exhibitions, and arts education programs through Datz Press, Datz Museum of Art, Datz Books, D'Arkroom.

Over the past decade, we have published more than 80 books which have been housed in major global institutions such as the New York Public Library (NYPL),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y (ICP), and the Stanford University Library and more.

T 02-733-8402
 F 02-735-5653
 nabon@kpa21.or.kr
 http://kpa21.or.kr/

03062 서울특별시 중로구 삼철로 6
 6 Samcheong-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G6
더돌스 호텔
The Dolls Hotel

더돌스 호텔 출판사는 작은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문학이 우리의 마음을 밝힐 것을 믿습니다.

Just as a candle lights up darkness, a piece of literature enlightens our minds.

문학

T 010-3729-8168
dollshotel@naver.com

0614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아주빌딩 501호
Aju Bldg Suite 501, 201,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문정희(Josephine Moon) / dollshotel@naver.com

117
더숲
Theforestbook

순수과학, 아동, 사회과학

2009년 첫 책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어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0여 권이 넘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간 분야는 과학, 청소년, 환경 분야의 책들이며, 그 외에도 실용서, 에세이, 어린이책 등 콘텐츠의 다각화를 꾀하며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대표도서로는 류시화 시인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시로 납치하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청소년과학 베스트셀러인 《재밌어서 밤새 읽는(재밌밤)》 시리즈, 『시골뽕집에서 자본론을 굶다』, 건축 분야의 스테디셀러 『주거해부도감』, 『주거 인테리어 해부도감』, 『주거 정리 해부도감』 등이 있습니다.

Established in 2009, The Forest Book Publishing House has published more than 300 paper/ebook titles. The Forest Book focuses mainly on publishing 'Science & Math' 'Nature & Ecology' and 'Children's Craft & Hobby Books' 'Children Books' 'Nonfiction'.

The Forest Book has strength in Print Media Campaign, Online Publicity and Social Networking Campaign. As a result, Many books of The Forest Book received heavy coverage in the mass/ social media.

T 02-3141-8301
F 02-3141-8303
info@theforestbook.co.kr

04018 서울 마포구 동교로 43-1 (망원동)
Theforestbook, 43-1, Donggyo-ro, Map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신선영(Sunyoung Shin) / 010-2632-4318 / syshin300@theforestbook.co.kr

길벗출판사는 독자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1991년(주)도서출판 길벗으로 출발하여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가 컴퓨터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 등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컴퓨터/인터넷 분야뿐 아니라 경제/경영, 인문, 취미, 여행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작정 따라하기'를 어학분야에 접목해 2000년 이지독을 설립(2019년 '도서출판 길벗'과 통합)하고 2006년 어린이 전문 출판을 위해 길벗스쿨을 설립했습니다.

오늘의 길벗은 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새로운 미션과 가치로 다시 시작합니다.

9748

"Gilbut Publishers is one of Korea's leading publishers of IT, foreign language, business, general interest, and children's books. We have had the greatest number of best sellers and authoritative books in IT and language reference compared to other publishers. We also produce business and children's educational books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and design advancement. Many of our titles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China, Japan, and several other Asian countries.

Gilbut Publishers is deeply interested in giving readers easy access to necessary information for a better future.

T 02-332-0931
F 02-323-0586
gilbut@gilbut.co.kr
gilbut.co.kr

04003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6 (서교동) 1층
1F, 56, World Cup-ro 10-gil, Mapo-gu, Seoul, Korea

T 031-942-5379
F 031-942-5378
book@yellowpig.co.kr
www.yellowpig.co.kr

10881 경기 파주시 문발로 115 (문발동, 세종대학교 출판부) 307호
115, Mumbal-ro, Paju-si, Gyeonggi-do, Korea

도서출판 노란돼지는 책을 펴냅니다.

도서출판 노란돼지는 어린이책 출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종합 출판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출판 노란돼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도서출판 노란돼지는 책을 그저 '상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책들로 전 세계,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싸 안아 주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노란돼지는 이러한 이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도서출판 노란돼지는 오래오래 길이 남을, 오래오래 더욱 너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The Yellow Pig publishing books. The Yellow Pig started as a children's book publisher.

But we are now preparing to become a general publisher. The Yellow Pig don't look back on the past. We only move forward. The Yellow Pig do not just treat books as "products."

We want that, with the books we've made, touch the hearts of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The Yellow Pig growing fast with this ideology. Please pay attention to us. The Yellow Pig is a publishing house that will last for a long time and that will be a wider world for a wider world.

All we have to do is move forward.

도서출판 봄별은 어린이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궁리하는 출판사입니다. 2012년 8월부터 2021년 11월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 도서 120여 종을 출간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책인 햇살그림책, 1-100세까지 함께 읽는 온그림책을 비롯하여 봄벌어린이문학, 사회교양서인 세계로한발짝 시리즈, 지식정보 시리즈인 찬찬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어린이책과 청소년책을 출간하는 어린이청소년종합출판사입니다. 봄별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따뜻하고 단단한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Springsunshine Publishing Co. is a publishing company where specialized editors and authors put their heads together to make good books. From August 2012 to November 2021, it is growing gradually, publishing 120 picturebooks, children's and youth books. Springsunshine strives to create warm and helpful information books tha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children to grow up healthy and happy with their hearts.

T 02-6375-1849
F 02-6499-1849
springsunshine@naver.com

0374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합동, 홍정로대우디오빌) 1406호
1406, 37, Seosomun-ro, Seodaemun-gu, Seoul, Korea

북극곰은 환경 상생, 치유라는 주제로 어린이도서와 교양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국내외 유수의 국제도서전 참가 등을 통해 뛰어난 신인작가 발굴에 힘쓰는 동시에 아름다운 우리 책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의 도서들은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으며 콘텐츠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북극곰은 아름다운 책을 매개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서출판 북극곰의 수익금 일부는 WWF(세계자연기금)에 기부됩니다.

BookGoodCome is home to children's books and fiction about healing and living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We devote ourselves to discovering talented new writers and sharing quality books with the world. Our publications have been recommended by numerous respected organizations and acknowledged for their excellent content and aesthetic illustrations. They have also been well received by international readers. We are dedicated to creating a beautiful and exuberant world with quality books.

T 02-359-5220
F 02-359-5221
bookgoodcome@gmail.com
www.bookgoodcome.com

04157 서울마포구 독막로 320 (도화동, 마포태원 테시앙) 지하 105호
B106, 320, Dongmak-ro, Mapo-gu, Seoul, Korea

작고 단단하게, 재미있게-
유유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를 돕는 인문교양 도서를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이 바로 유유가 지향하는 인문교양의 개념이며, 유유는 독자가 이런 개념을 자기 내면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Small but Firm and Enjoyable-
UU Press publishes liberal arts books that help readers who want to study on their own. UU press intends to promote self-education where readers nurture and develop themselves into an intellectually independent human being, which, again, is in full line with the concept of liberal arts UU press pursues. Through the medium of book, UU press helps its readers internalize these ideas.

T 070-7731-2960
F 0303-3444-4645
uupress@gmail.com
uupress.co.kr

04003 서울 마포구 동교로15길30(서교동, 시흥)3층
3F, 30, Donggyo-ro 15-gil, Mapo-gu, Seoul, Korea

도서출판 작가는 K-Culture를 지향하는 한류문화 출판사입니다. 2000년 2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문학과 영화,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1,000종의 도서를 출간해왔습니다. 단행본뿐만 아니라 2006년 3월에 창간한 정기간행물 《컬투라》는 매호 이슈를 다루는 테마와 리뷰 등 다양한 콘텐츠가 빛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입니다. 특히 설문을 통해 그해 최고의 시, 소설, 영화, 드라마, 음악, 미술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시상 및 출판하는 ‘컬투라 어워즈’는 K-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류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문화전문지 컬투라와 함께 도서출판 작가는 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문화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통섭의 미학과 동시대 문화의 흐름을 제시하는 중핵이 되겠습니다.

JAKGA is a publisher that seeks to promote K-Culture and advance the Korean wave to the world. Established in 2000, it has been publishing around 1000 books ranging from literature to films, culture and art. Cultura, the periodical launched in 2006, deals with a variety of topics and issues in monthly reviews and themes, being recognized as a major culture and art magazine in Korea.

With its monthly culture and art magazine Cultura, JAKGA works to help build a culture society that reaches every corner of our life, showing the beauty of consilience and cultural trend as a core publisher.

T 02-366-8111
F 02-366-8110
morebook@naver.com
www.cultura.co.kr

03756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6길 50 (북아현동)
JAKGA PUBLISHING CO, 50, Bugahyeon-ro 6-gil, Seodaemun-gu, Seoul, Korea

도서출판 도반은 교육관련 도서 기획사에서 출발하였으며 2009년 송강스님의 『금강경』 발간을 계기로 불교경전, 스님들의 수행서 등 불교와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 권 한 권 진정성 있는 책을 만들어 '대장경의 후예'가 되고자 하는 출판사의 이념 아래 닥섬유 고유의 특성을 담은 전통한지, 안동한지로 한지본 경전도 만들고 있습니다.

천 년의 숨결이 느껴지는 한지에 금강경, 법화경 등 경전들을 고서제본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출판의 가치를 재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이라면 누구에게나 출판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2020년부터 장애 시인들의 감성시집 시리즈를 출간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Doban, Book Publisher started as a book agency related to education arena, and has been publishing various books related to Buddhism, such as Buddhist scriptures and monks' training books, with the publication of the "Diamond Sutra 金剛經" by Buddhist monk Song Kang's translation in 2009.

Under the publisher's philosophy of becoming a 'Descendant of the Tripitaka Koreana' by making a genuine book, even if it is a little slow, the scriptures are made with traditional Hanji and Andong Hanji that contai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ak" – the paper mulberry- Textile.

We are strivin

T 031-465-1285
F 031-9851227
dobanbooks@naver.com
dobanbooks.co.kr

13991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32번길 32 (안양동)
doban press, 32, Anyang-ro 332beon-gil, Man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도서출판이곳은 디자인을 시작으로 좋은 작가님들과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작가와 책이 마주치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넘어 다름을 생각합니다.

Here Books started out as a design firm and is now a proud publisher of great writers and books.

We do not just publish books. At Here Books, it is our mission to strive for excellence in our work through providing unique and professional services that is beyond "better."

T 010-2020-2548
F 050-4062-2548
bookndesign@daum.net
www.bookndesign.com

0562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4길 9 (송파동, 문정빌) 201호
201, 9, Songpa-daero 44-gil, Songpa-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박윤희(yunhee park) / 010-2020-2548 / bookndesign@daum.net

도어스프레스는 이미지와 문학을 다루는 출판사입니다. 문은 공간을 연결하기도 하고 구분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지의 영역, 그리고 문학의 영역 사이에 있는 투명한 문을 찾고자 합니다. 그 문을 열어 이미지와 문학이 마주할 때 일어나는 일을 책에 담아냅니다. 가끔은 문을 닫고 이미지의 영역, 그리고 문학의 영역을 각각 탐구합니다.

T 010-6622-0474
ysochun@gmail.com
www.instagram.com/doorspress

03044 서울 종로구 통의동 12, 3층
3F, 24, Jahnamun-ro 10-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동그람이는 '동물 그리고 사람 이야기'의 약어로,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이 한국의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모여 만든 출판사입니다. 동물에세이 분야의 스테디셀러인 정우열 작가의 『노견일기』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론칭했으며, 이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태수는 도련님』, 『우리가 진짜 몰랐던 동물병원 이야기』, 『빠빠옹의 감자농장』 등 에세이툰 및 『고양이 영양학』 등 동물의 생태와 관련한 교양도서를 지속적으로 출간 중입니다.

또한 '개 행동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Inside of a Dog』(미국)을 시작으로, 어린이용 반려동물 돌봄 가이드북 『강아지와 가족이 됐어요!』, 『고양이와 가족이 됐어요!』(독일)를 비롯한 각국의 양서들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Animal and Human Story is a publishing company created by animal lovers to contribute to the spread of Korea's pet culture. "Olddog Diary" series has been successfully launched as a steady seller in the field of animal essays. Since then in order to spread interest and consensus on animals, continuously publishing cartoon and animal ecology. Also starting with "Inside of a Dog" which is called the "Textbook of Dog Behavior," introducing foreign books from each country to Korea through expert supervision: including "I became a pet family!" series as a guidebook for caring for pets for children.

T 02-724-2794
F 02-724-2797
dgrl_conoon@naver.com
blog.naver.com/animalandhuman

03981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83 (연남동, 시지유빌딩) 3층
1F, 183, Seongmisan-ro, Map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이소현(LEE SOHYEON) / 010-5501-7194 / sh1031@hankookilbo.com

동아시아는 『떨림과 울림』, 『아름이 길이 되려면』, 『미처있고 과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2021년 서울국제도서전 ‘가을 첫 책’)』 등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서를 두루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동아시아의 SF 브랜드 ‘허블’은 2016년부터 신인 작가 등용문인 ‘한국과학문학상’을 통해 K-SF의 열풍을 이끌었으며,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천선란 작가의 『천 개의 파랑』을 출간해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학키트 잡지 《메이커스》와 어린이 과학잡지 《메이커스주니어》를 통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과학을 손으로 체험하며 배우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아동·청소년 브랜드인 동아시아사이언스, 웹소설 브랜드 스토리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ast-Asia Publishing Co.” is a comprehensive publishing company that publishes books i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ities, society, and science. We run the Korean Science Literature Award through the literary brand “Hubble” and launched the “Transcendence” series in 2022 that breaks down the genre walls of existing SF. In addition, we provide both adults and children with experience learning science by hand through science kit magazine “Makers” and children’s science magazine “Makers Junior.” We also operate East-Asia Science, a children’s and youth brand, and Story Zone, a web novel brand.

T 02-57-9724
F 02-57-9726
dongasiabook@naver.com
www.facebook.com/dongasiabooks

04627 서울중구 퇴계로30길 15-8 (필동1가, 무석빌딩) 2층
2F EASTASIA Publishing Co, 15-8, Toegy-e-ro 30-gil, Jung-gu, Seoul, Korea

DNADesign은 ‘세상에 없던 유니크한 즐거움’이라는 모토로 세상 모든 이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통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재를 아트웍으로 표현하고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스티커 컬러링북을 개발하여 구독자들의 인지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 재미뿐만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특별함을 전달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적인 생활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스스로 학습과 혼자만의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려는 움직임 속에 단기간에 1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발맞춰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취미분야 출판물 진행할 계획이며, 인쇄서적과 디지털출판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구독자들의 인지도를 넓혀나가려 합니다.

DNA Design is a studio that develops and communicates various contents so that everyone in the world can have fun under the motto of “unique pleasure that was not in the world.”

We are developing a sticker coloring book that expresses various materials that exist in the world through artwork and enjoys them as a hobby to form the awareness of subscribers.

We plan to publish more informative and diverse hobby fields in line with consumers’ needs, and we are planning to expand our scope to print books and digital publishing.

T 062-384-3178
F 0303-3444-3178
dna_design@naver.com
www.dnadesign.kr

61432 광주 동구 동명로67번길21 (지산동) 2층
2F 21, Dongmyeong-ro 67beon-gil, Dong-gu, Gwangju, Korea

디자인이음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책을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베어 매거진》으로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킨포크》 한국어판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독립출판 작가들의 빛나는 작품들을 리뉴얼한 《청춘문고》, 고전문학을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로 재현한 《이음문고》, 꾸준한 사랑을 받는 『리타의 정원』, 『나의 BB』 등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효자동의 한옥 '베어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와 워크샵으로 독자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책을 기반으로 소소한 일상의 새로운 감성과 문화를 공유해나가고 있습니다.

Design Eum is a publisher that makes various books for having a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We are publishing <Bear Magazine> which tells the stories of people who do happy things and the Korean version <Kinfolk> of lifestyle magazine, <cheongchun mungo> series introducing works by independent publishers, <eum mungo> series that reinterprets works from the 1970s, and also motional and in-depth books like <Rita's Garden>, <My BB>

In addition, we has been running a 'Bear Café' in Hyoja-dong's Hanok. we conduct various events such as exhibitions, pop-ups, and lectures to interact with readers.

T 02-723-2556
F 02-723-2557
designeum@naver.com
smarstore.naver.com/designeum

03042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24길20 (효자동, 이음빌딩) 501호
room 501, 20, Jahamun-ro 24-gil, Jongno-gu, Seoul, Korea

뜨인돌출판(주)는 '분명한 뜻이 담긴 책'을 출간하겠다는 목표 아래 1994년 창립된 단행본 종합 출판사입니다. '독자들이 시대를 읽고 사유하며 행동하는' 인문서적,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비소설 서적,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청소년 서적, 그리고 '꿈·도전정신·지혜를 키워 주는' 어린이 서적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기획,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바라보는 예리한 시선,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출판사가 되겠습니다.

Since established in 1994, Danielstone Publishing has been one of the Country's premier publishers. With a legacy of quality and commitment to its customers that is unsurpassed, Danielstone Publishing provides such categories as Human Science, Essay, and Non-Fiction for young adult, children and general readers in Korea. Daniel's Stone publish 30 titles a year and has a total title of 800.

T 02-337-5252
F 031-947-5868
webmaster@ddstone.com
www.ddstone.com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337-9 (서패동) 12층
2F, 337-9,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T 010-7236-0618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480 (문발동, 아트팩토리엔터테인먼트) 비동 239호

T 010-4535-7412
gyus7412@gmail.com
www.instagram.com/
martianstory

마르시안스토리(martianstory)는 동시대의 사진 및 순수미술
작업자들을 위한 출판사입니다. 창작을 하는 작가에게 인쇄물은 또 하나의
작업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작업물인 종이책의 가치와 보존성을 위해
인쇄, 제책 그리고 물성에 좀 더 집중해서 제작하는 출판사입니다.

42453 대구 남구 현충로6길 9-13
9-13, Hyeonchung-ro 6-gil, Nam-gu, Daegu, 42453, Rep. of KOREA

저작권 담당자

인영아(In Youngah) / 02-337-0212 / iya@ddstone.com

2000년에 출범한 마음산책은 시와 소설, 산문을 포괄하는 '문학의 공간', 세상에 대한 통찰이 번뜩이는 글을 통해 사유의 폭 넓히기를 지향하는 '지혜의 공간', "문화의 향유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누린다"를 모토를 갖고 펴내는 '문화의 공간' 등의 영역을 갖고 문학, 예술, 인문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마음산책은 기획 개념이 돋보이는 문학서, 이야기가 담긴 예술서, 인문서를 지향하면서 출판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Maumsanchaek opened in August 16, 2000. 'Maumsanchaek' has two meanings : one is a 'walking caused by mind, a stroll of thought' [maum(mind) + sanchaek(a walk)] and the other is a 'book in the mind-mountain piled up with readings' [maum(mind) + san(the mountain) + chaek(a book)].

At Maumsanchaek, we are trying to make a new trend mainly with literary books with a distinctively intensive idea or concept, the art book with stories, and the humanitarian book which would extends the width of thought.

T 02-362-1452
F 02-362-1455
maum@maumsan.com
www.maumsan.com

04043 서울 마포구 잔디리로39인길 20 (서교동, 마음산책 출판사 사옥) 5층
fifth floor, 20 Jilandar-ro 39an-gil, Mapo-gu, Seoul, Korea

단절된 마음들을 책으로 잇고 싶은 마음이음 출판사는 2017년부터 책을 펴내기 시작한 어린이 청소년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동화 시리즈 《마음 잇는 아이》
 - 초등학생을 위한 교양 학습 시리즈 《지식 잇는 아이》
 - 장애 인식 개선 동화를 비롯하여 사회 쟁점들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창작동화 시리즈 《함께하는 이야기》
 - 청소년 문학, 인문 시리즈 《마음틴틴》
- 마음이음 책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책, 자신과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책들을 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indbridge publishing Company, which wants to connect disconnected minds with books, specializes in children and youth books since 2017.

Here is the representative series of Mindbridge publishing Company.

- Story books for elementary schoolers: Children connecting the mind
- Books for learning for elementary schoolers: Children connecting knowledge
- Story books about improving awareness of disabilities and social issues for elementary schoolers: The story of all of us
-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Humanities books series 'Mind Teen Teen'

T 070-7570-8869
F 0505-333-8869
leum2016@hanmail.net
blog.naver.com/leum2018

03925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삼암동, 케이지아카데미) 917A호
9F, 917A, 402,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Korea

L15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PLATFORM P

출판 관련 지원센터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PLATFORM P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작은 출판사와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작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설립한 창작 공간입니다.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뿐 아니라 작가와 번역가, 저작권 에이전트,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책 작가, 만화가, 북튜버, 출판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들까지 모여서 함께 작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홍대입구역에 바로 붙어 있는 편리한 접근성과 730여 평의 잘 정비된 시설, 출판 창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 P는 책을 쓰고, 만들고, 읽는 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PLATFORM P is a center established by Mapo-gu, one of the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in July 2020 with the aim to support small presses and creators in the publishing field. The center has rental spaces for creators and libraries and cultural spaces for the public and supports various experimentations and training programs.

PLATFORM P houses publishers that just launched their publishing houses as well as people with various professions, such as authors, translators, literary agents, book designers,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ublishing start-ups

T 02-332-4626
 F 02-336-4627
 info@platform-p.org
 www.platform-p.org

04051 서울 마포구 신촌로2길 19 (동교동) 코스테이션 2층
 costation 2F, 19, Sinchon-ro 2-gil, Mapo-gu, Seoul, Korea

G25
목수책방
Moksu Publishing Company

자연과학, 사회과학, 에세이,
 순수과학, 기술과학

‘나무(木)처럼 물(水)처럼 세상을 살리는 지식’ 목수책방은 ‘생태’를 주제로 한 책을 펴내는 출판사입니다. 지금까지 자연, 환경, 유기농 등을 주제로 한 30여 종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019년 말에는 ‘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 주고, 종이책의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에세이 시리즈 ‘하는 사람’((읽는) 사람, [그리는] 사람, {걷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라는 단순한 사실을 쉽고 흥미롭게 전하는 책, 우리 주변의 자연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책,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책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MOKSU Publishing Company has been publishing books about ecology. Nature, organic farming, human beings and the way of living a sustainable life are the main concerns of MOKSU. MOKSU believes that everything and everyone in this world is interconnected and interacted. The fact that we can save others and be saved by others since we are all interconnected is one of the themes MOKSU wants to publish. MOKSU also publishes books that help people become intimate with nature, and encourage people to live as responsible members sharing the same planet with other creatures.

T 070-8151-4255
 F 0303-3440-7277
 moonlittee@naver.com
 post.naver.com/moonlittee

0534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3 (천호동) 월림프라자 819호
 819, 1073, Cheonho-dae-ro, Gangdong-gu, Seoul, Korea

내 삶을 나답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I ask questions that I need to make my life like myself.

T 070-8098-4236
question-answer@naver.com
www.selfqna.co.kr

05308 서울강동구 상암로27길28-7 (원효동) 403호
403, 28-7, Sangam-ro 27-gil Gangdong-gu, Seoul, Korea

“문장과장면들, 흐르는 모든 것들을 애정해. 깊은 어딘가에 남기고 싶어져.”

2019년 봄에 문을 연 출판사 문장과장면들은 작가 가랑비메이커가 운영하는 1인 출판 스튜디오입니다. 문장과장면들의 이름은 2015년에 출간된 단상집 『지금, 여기를 놓친 채 그때, 거기를 말한들』 수록글 〈흐르는 모든 것을 애정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일기장 속 문장이 첫 책에 옮겨지고 긴 계절을 지나 마침내 작은 출판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작은 빛을 전하고자 문장을 쓰고 장면을 남깁니다. 도서 출간뿐만 아니라 문장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통하여 보다 깊고 넓은 방식의 위안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 love sentences, scenes, and everything that flows. I want to write it deep down.”

The publisher SENTENCEANDSCENES, which opened in the spring of 2019, are a one-person publishing studio run by writer Garangbi Maker.

We write sentences and leave scenes to convey small light to the world. sentence and scenes are the way we talk. In addition to publishing books, we aim to convey comfort in a deeper and wider way through various plans to breathe with sentences.

T 010-9483-0120
sentenceandscenes@gmail.com
www.instagram.com/sentenceandscenes

21332 인천부평구 주부토로 201, 202동 605호
202-605, 201, Jubuto-ro, Bupyeo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창립 이후부터 문학동네소설상, 문학동네신인상 등을 통해 김영하, 은희경, 천명관, 김인수, 조남주, 장강명 등 국내 최고의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으며,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동네는 젊은작가상, 김승옥문학상 등을 운영하여 역량 있는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뛰어난 한국문학 작품을 해외에 알리는 데도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문학동네출판그룹은 8개의 계열사들이 문학뿐 아니라 역사, 철학, 과학, 경제경영, 교육, 예술, 만화, 실용 등 각 분야에서 참신한 기획과 정교한 편집을 바탕으로 독자의 마음속에 감동의 물살을 흐르게 하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hrough Munhakdongne Novel Award and Munhakdongne New Author Award serving as a gateway for young authors, we have been discovering the best writers in Korea including Kim Young-ha, Eun Hee-kyung, Cheon Myeong-kwan, Kim Un-su, Cho Nam-ju, and Chang Kang-myung. By awarding writers with Young Author Award and Kim Seung-ok Literary Award, we encourage writers on their work, while striving to present great Korean literary works overseas.

T 031-955-3576
jnh1500@munhak.com
www.munhak.com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210 (문발동, 문학동네)
munhakdongne, 210,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저작권 담당자 박지영(Park Ji Young) / 031955 / jypark@munhak.com

미디어버스는 서울에 위치한 소규모 출판사로 2007년에 디자이너, 기획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진과 아티스트 북의 출판 및 유통 일을 하며 전시 및 행사, 워크숍 등도 기획합니다. 기관과 회사를 위한 프로젝트나 기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서울에서 서점이자 프로젝트 스페이스인 더 북 소사이어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출판물의 판매를 비롯해 전시, 리딩룸과 같은 스터디 프로그램,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 토크 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Mediaus is a small publishing house based in Seoul, Korea. It was founded in 2007 by independent curators with the collaboration of designers. Mediaus publishes zines & books, produces and distributes, organizes exhibitions & events, directs a workshop, and carries out project or book commissions for companies & institutions.

T 010-4409-9448
F 0504-024-3349
mediaus@gmail.com
www.mediaus.org

03044 서울 중문구 지하문로 10길 22, 201
2F Jahamunro10gil 22 Jongno-gu Seoul Korea

1966년 '백성의 소리를 울리게 담는다.'라는 뜻의 '민음사'가 출판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55년간 민음사는 인문학적 가치를 함양하고 젊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정확한 번역과 정제된 목록으로 고전의 기준이 된 '세계문학전집'을 필두로 오르한 파묵, 가즈오 이시구로, 올가 토카르추크 등의 세계적인 작가를 국내에 알렸으며 '오늘의 젊은 작가'를 통해 한국의 젊은 소설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계시인선'을 통해 국내 시문학 발전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보건교사 안은영』 등을 해외에 번역 수출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일조했습니다. 또한 제러미 리프킨, 마사 너스바움 등 해외 석학들을 소개하는 한편, 동양 고전을 꾸준히 출간하여 한국 출판의 지적 축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ounded in 1966, Minumsa, which means "delivering the voice of the people," has engraved its name into the world for 55 years, publishing more than 5,000 books. We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by translating such as KIM JIYOUNG, BORN 1982, SCHOOL NURSE FILE, CONCERNING MY DAUGHTER. Minumsa has also continued to introduce the finest foreign literature and writers such as Olga Tokarczuk, Orhan Pamuk, Kazuo Ishiguro, Murakami Haruki, Jeremy Rifkin, Walter Isaacson, Elizabeth Gilbert and many more.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website, www.minumsa.com.

T 02-515-2000
F 02-515-2007
aich886@minumsa.com
minumsa.com

06027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3길 62 (신사동) 강남출판문화센터 603호
Gangnam Publishing Center 62, Dosaan-daero 1-gil, Gangnam-gu, Seoul, Korea

〈바캉스 Vacance〉는 한국 그림책 작가들의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본업을 잠시 떠나 '휴가'처럼 자유롭게 참여하는 프로젝트성 공동체로, 기존 그림책 출판 시장에서 다루기 힘든 다양한 주제나 새로운 표현을 담은 독립 출판물로 폭넓은 독자와의 만남을 모색합니다.

바캉스는 옛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전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옛이야기가 담고 있는 풍부한 함의, 다양한 코드, 흥미로운 이미지들을 발판 삼아 새로운 시도를 담은 책들을 만듭니다.

〈Vacance〉 is a project-based group of Korean picture book artists. Each artist freely participates and seeks to meet various readers through independent publications dealing with diverse topics and new expressions. "Korean Folk Tale Project" is Vacance's current working project.

T 010-5579-2090
suzi@ebooks@yahoo.com
www.instagram.com/vacanceproject

04974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66길 92 (원정동) 401호
4F, 401, 92, Achasan-ro 66-gil, Gwangjin-gu, Seoul, Korea

박이정출판사는 1989년 ‘넓이(博)’와 ‘깊이(精)’가 있는 책을 만든다는 취지로 창립한 이후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고 계승·발전시킨다는 사명감으로 32년간 한국어문학 분야의 서적을 출간해왔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비중 있는 한국학 연구서를 비롯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자료들을 발굴하여 일반 대중 독자들에게 보급해 왔습니다.

2022년 현재 1,900여 종의 한국학서적을 출판 유통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분야로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소개하는 도서도 꾸준히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Pagijong Press, Inc, was founded in 1989, making us a publisher in the field of language studies that’s been exploring, developing, and honoring the Korean language for 32 years.

Keeping pace with the times, we’ve decided to diversify our digital content, and boost ou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 all so we can continue crafting books while proudly contributing to both publishing and human learning.

T 031-792-1195
F 02-928-4683
pjibook@naver.com
www.pjibook.com

12918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 45 (홍산동, 미사켄텔빌리지) 749호
F749 ROOM, 45, Jojeong-daero, Hanam-si, Gyeonggi-do, Korea

발코니 출판사는 #여성 #청년 #지역 세 가지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책을 만듭니다. 건축물의 부차적 요소처럼 다뤄지는 발코니는, 사실 오늘과 내일의 경계에 서서 가장 먼저 우주를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발코니 출판사는 이 공간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발판 삼아, 빛나는 문장을 그려모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겠지만 오늘 밤은 어떡하나요(2020)』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새벽은 아무런 답이 아니다(2021)』라며 다독일 때도 있고, 『여기에 무늬를 남기고 갑니다(2021)』라며 발자국을 깊게 남기다가도 『쉽게 사랑하고 어렵게 미워하고 싶지만(2022)』이라며 지나간 자리를 자꾸만 뒤돌아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흔적은 여러분 앞에 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T 010-9322-2710
heehye@balconybook.com
balconybook.notion.site

52789 경남 진주시 모덕로 96, 302호
#302 BALCONY, 96, Modeok-ro, Jinju-si, Gyeongsangnam-do, Rep. of KOREA

밝은미래는 2005년 5월 어린이 책 출판사로 출발했습니다.
국내외 창작 동화, 세상을 담은 그림책,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자라는 데 필요한 책들을 350여 종을 만들어 왔습니다.
책이 드리는 즐거움은 단지 웃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희로애락이 살아 숨쉬는 스토리의 진정한 즐거움이며, 지적 호기심이 충족되어 세상을 좀 더 밝게 보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가진 최고의 즐거움'을 위해 밝은미래는 노력하겠습니다.

Balgeunmirae Publishing Co. has mainly published children's books since May 2005. We have published more than 400 fictions, Nonfictions, information books, learning cartoons and etc. <No.1 Safety> series, that have published the TV program as a learning cartoon, have been a best-seller. A number of books which we published have won awards from various institutions. We strive to give bright mind and good knowledge to the children.

T 02-322-1612
F 02-322-1085
day1123@nate.com
www.bmirae.com

04043 서울 마포구 전차리로39안길 36 (서교동) 2층
4, 36, Jandar-ro 39an-gil, Mapo-gu, Seoul, Korea

온라인과 SNS 소통이 활발해진 요즘, 밥북은 변화된 출판환경에서 '밥 같은 책'이라는 출판가치 아래 힘차게 닳을 올렸습니다.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글을 쓰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흐름과 시대의 고민을 꺼안으면서 '밥 같은 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밥북은 기획출판부터 자비출판까지 다양한 출판방식으로 콘텐츠를 가진 모두에게 출간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각각의 향기와 모습으로 공존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출판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밥북은 작가와 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도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In these days, when online and social media communication is active, Bob Book is promoting the publication value of 'a book like rice' in a changed publishing environment. We want to create a 'book like rice'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anyone who writes with an open mind that respects other ideas and embraces the social trends and concerns of the times.

T 02-6925-0370
F 02-6925-0380
bobbok@hanmail.net

04037 서울 마포구 양화동 59 (서교동) 화승리버스텔 303호
hwasing riverstel 303, 59, Yanghwa-ro, Mapo-gu, Seoul, Korea

별빛들은 2017년 1월 20일에 만들어진 문학 출판사로 기존의 출판구조와 창작방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문학 활동하는 작가들과 협업, 그들의 작품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문학'과 '출판'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문학의 다양화, 출판·예술의 민주화를 유발하며 특정 시장구조에 의한 대중문학이 아닌 더 새롭고 실험적인 문학을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yeolbitdeul was a literary publisher created on January 20, 2017, and introduces their works in collaboration with writers who freely engage in literature independently of the existing publishing structure and creative method.

Through collaboration with independent writers, we are trying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publishing" flexible, diversify literature, democratize publishing and art, and introduce new and experimental literature to the public, not popular literature by a specific market structure.

T 010-9045-8017
lgh120@naver.com
www.byeolbitdeul.com

18316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봉길 35-10, 104동 1304호
104, 1304, 35-10, Sanghong-gil, Bongdam-eup, Hwaseong-si, Gyeonggi-do, Korea

서울 용산 해방촌에 위치한 서점이자 출판사입니다.

2014년에 오픈하여 국내외 독립출판물, 디자인·예술·문화 관련 단행본, 소규모 브랜드의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며, 동명의 출판사 '별책부록'과 출판 브랜드 '프랙티컬 프레스'를 운영합니다.

동명의 출판사 '별책부록'에서는 영화 리뷰 매거진 《CAST》, 시와 그림을 함께 담은 《Poetic Paper》 시리즈, 그 외에 간결한 문체의 시집과 에세이를 펴냅니다.

출판 브랜드 '프랙티컬 프레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작업자들의 이야기와 일상에 유용하거나 무용한 정보를 담은 실용 에세이를 펴냅니다.

It is a bookstore and publisher located in Haebangchon, Yongsan, Seoul.

Opened in 2014, it sells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ependent publications, design · art · culture-related books, and design products of small brands.

'Byeolcheck', a publisher of the same name, publishes a movie review magazine <CAST>, <Poetic Paper> series that combines poetry and drawings, and other concise poetry and essays.

The brand 'Practical Press' publishes practical essays containing useful or useless information about people in various fields and their daily lives.

T 070-4007-6690
F 0303-3440-8215
byeolcheck@gmail.com
www.byeolcheck.kr

04339 서울 용산구 신월로16길 7, 1층
1F, 7, Sinheung-ro 16-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봄개울은 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을 펴내는 출판사입니다.
 봄개울은 행복한 꿈이 담긴 책을 만듭니다.
 봄개울은 나와 너와 우리가 소통하는 책을 만듭니다.
 봄개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건강한 가치를 키우는 책을 만듭니다.
 봄개울은 봄햇살 아래 책 읽는 소리가 줄줄줄 흐르는 세상을 꿈꿉니다.

Bomgaeulbook is a publisher that publishes books for infants, children and youth.

Bomgaeulbook publishes the books that have dreams.

Bomgaeulbook publishes the books that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omgaeulbook publishes the books help shape healthy and right values.

Bomgaeulbook has dream of the world where the sound of reading books under the spring sunshine.

T 033-263-2952
 F 0303-3130-2952
 bomgaeulbook@naver.com
 blog.naver.com/bomgaeulbook

24468 강원 춘천시 남면 충효로 750-12 (별산리) 2층
 2nd, 750-12, Chunghyo-ro, Nam-myeon, Chunchcheon-si, Gangwon-do, Korea

‘봄봄’이란 ‘봄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와 새싹, 그리고 희망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책을 만든다는 목표로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뿐만 아니라 어른이 보는 그림책과 그림책에 관련된 전문서적을 포함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그림책 출판을 하고자 합니다. 창작 그림책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그림책 시리즈, 신화와 전설을 다루는 우리나라 그림책 시리즈, 이제 막 스스로 책 읽기를 시작한 아이들을 위한 봄봄 어린이 시리즈,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인 초등 고학년들을 위한 봄봄 문고 시리즈, 그리고 태어나서 책을 처음 접하는 아기들을 위한 아기 봄봄 시리즈가 있습니다.

“Bombom,” which means “to see the spring” in Korean was founded in 2003 to publish children’s picture books that present hopes and dreams, which are like fresh sprouts in the springtime.

We’ve been devoted to introducing wonderful picture books with warm stories and beautiful illustrations around the world. And also excellent picture books by Korean writers and illustrators.

We are planning to be a leading publisher specializing in picture books by widening our territories in the future, from picture books for children to those for adults and theory books about picture books.

T 02-2212-7088
 F 02-2212-7056
 bbb@bombombombook.com
 blog.naver.com/bbpub

04808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00 (용답동, 신창비메세빌라) 101호
 101, 400, Cheonho-daero, Seongdong-gu, Seoul, Korea

J19
봄알람
Baume à L'âme

종류, 사회과학

페미니즘 출판사 봄알람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펴낸 책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현실에 즉각 개입해 여성의 삶을 바꾸자는 신조 아래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또 주목해야 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책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낙태죄, 대리모, 성매매와 같은 여성의 기본권 문제, 임금 차별과 여성운동의 역사와 인물을 다룬 책 등을 폭넓게 출간했습니다. 『김지은입니다—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은 여러 서점과 언론사에서 2020년 '올해의 책'에 선정되었으며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로 '인사회 선정 10년을 빛낸 책'을 수상했습니다.

Baume à l'âme is a publisher which aspires to provide a sustainable platform for the fight against misogyny. Baume à l'âme opened in July 2016 by publishing 《Reclaim the Language: How to deal with a sexist》, a practical handbook for today's women who are getting frustrated by misogynistic society. Hailed by many readers, the book was chosen as the Best Book of the Year in 2016.

We later published a book on the history of Korean feminism and a linguistic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feminist movement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continuing awareness about the issue.

T 010-2443-3095
 F 0303-3443-8868
 we@baumealame.com
 www.baumealame.com

03780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127 709호
 709 127 Sinchon-ro,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J12
북스토리
Bookstory

문학, 아동, 철학

1999년 8월 '동시대의 감성을 담아내는 책'을 만들고자 출발한 북스토리는 일본문학 출판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2년 인문, 교양 전문 브랜드 '더 좋은책'을 런칭하여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화 분야에서는 『피너츠 완전판』과 《북스토리 아트코믹스 시리즈》를 통해 국내외 작품성이 뛰어난 만화를 출간하고 있으며, 2010년 런칭한 아동브랜드 '북스토리아이'에서는 『블랙 독』 등 좋은 그림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Since 1999, Bookstory has been publishing books which 'capture the contemporary sensitivity'. Korean edition of Japanese novels such as "N-P" by Yoshimoto Banana, "TV People" by Murakami Haruki, and "The Girl Who Leapt Through Time" by Yasutaka Tsutsui became our touchstone as the literature publisher.

BookstoryI, our children's books brand, has published titles like "Black Dog" by Levi Pinfold, "Wiggly Caterpillar Train" by Nishihara Minori. And "Bookstory Art Comics" is our ongoing series for international art comics, including "The Complete Peanuts" by Charles M. Schulz.

T 02-332-5281
 F 02-332-5283
 bookstory@naver.com
 www.bookstory.co.kr

04037 서울 마포구 양화로7길 6-16 (서교동) 서교제일빌딩 201호
 No.201 6-16, Yanghwa-ro 7-gil, Mapo-gu, Seoul, Korea

북키스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란 모토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책갈피, 북파우치, 북아트, 명화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Gift for Booklover’

It is our motto for business. We produce various goods for booklovers, such as, bookmarks, book pouch, DIYBookart etc.

T 032-665-1322
booksslover@gmail.com

21539 인천 남동구 하천로 5 (만수동, 만수빌딩) 701호
701, 5, Hachon-ro, Namdong-gu, Incheon, Korea

주식회사 북틀은 국내 최대 전자책 업체입니다.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뷰어, CMS, DRM 등 솔루션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하며, 다수의 전자책 콘텐츠 제작을 통해 많은 출판사들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나가며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클라우드 웹뷰어 서비스는 전자책 뷰어 시장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틀과 더불어 운영중인 국내 유일 B2B 전자책 구독 전문 서비스 (주)북커스는 약 500여개 제휴 출판사, 6만여권 도서를 공공 및 대학 도서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독서교육 서비스로 차별화된 B2B 전자책 구독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출판사와 독자를 끈끈하게 이어줄수있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BOOKSWAGE is the largest ebook company in Korea.

It is possible to develop and operate solutions such as viewers/CMS/DRM and it continues strong partnerships with many publishers through the creation of a number of ebook contents.

The recently developed Cloud Web Viewer service is bringing new life to the ebook viewer market.

BOOKERS, the only B2B ebook subscription service in Korea, serves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public and university libraries and companies and provides differentiated B2B ebook subscription services.

I will try to become a bridge that can connect publishers and readers.

T 070-7848-9387
F 070-7848-9388
helpdesk@bookswage.com
www.bookswage.com

04074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1(상수동, 보부빌딩) 3층
3f, 9, Wausan-ro, Mapo-gu, Seoul, Korea

자연과 동물을 주제로한 패브릭으로 핸드메이드 북커버를 제작합니다.
신국판, 국판, 문고판등의 기성사이즈와 원하시는 사이즈대로의
주문제작도 하고있습니다.

Handmade bookers are manufactured from fabrics that focus
on nature and animals.

The old sizes of new editions, national editions, and book
editions.

We're also making orders for the size you want.

T 010-2043-9921
all4ucat@naver.com
smarstorerenaver.com/
luckyhands

07754 서울강서구강서로18길92-8 (화곡동, 삼성빌라트) 비어호
B01 Hq, 92-8, Gangseo-ro 18-gil Gangseo-gu, Seoul, Korea

1974년 광덕 스님이 설립한 불광출판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전문출판사입니다. 지금까지 48년 동안 통권 572호(2022년 6월호)의
《월간 불광》과, 모두 600여 종의 단행본을 출간해오며, 불교의 온전한
가르침과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불교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불교학자의 학술서, 저명한 스님들의 논서를 중심으로
불교출판을 이끌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미디어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불교 공부의 길라잡이, 경전의 현대적 해석, 인문학으로서의 불교,
명상의 이해와 실천, 전통적인 한국 불교 문화, 서구의 불교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교양 브랜드 '원더박스'를 런칭해 독자들의 손을 잡고
우리 사회의 경계들을 산책하는 인문, 사회, 어린이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About Bulkwang Publishing〉

Founded in 1974 by Ven. Gwangdeok, Bulkwang Publishing
has been Korea's leading Buddhist book specialist ever since. We
have published 600 titles over the past 48 years, during which we
spearheaded the trends of new Buddhism that the times demanded
with sound teachings of Buddhism. As publishers, we placed
a special focus on academic books written by young Buddhist
scholars and the writings of prominent Buddhist monks.

〈About Wonderbox Publishing〉

Humanities, Society, and Children books that walk the borders
of our society holding the hands of readers.

T 02-420-3200
F 02-420-3400
bulkwang_c@hanmail.net
www.bulkwang.co.kr

03150 서울종로구우정국로45-13(수송동) 3층
3F, 45-13, Ujeongjuk-ro, Jongno-gu, Seoul, Korea

브레드는 2017년 시작한 라이프스타일 출판사입니다. 철학이 있는 라이프스타일의 기록을 모토로, 생활, 미식, 공간, 환경, 여가 등 개인의 삶을 살피고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나무의 시간』, 『나의 프랑스식 샐러드』, 『제로웨이스트 가드닝』, 『집을 쫓는 모험』 등 일상의 가치와 아름다움, 잔잔한 사유를 선사하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B.read Books champions the most extraordinary human voices that echo in a familiar but profound way. We exist to fulfill sustainable

life style with a firm philosophy. Since 2017, our books have shaped the broader cultural life of our society regarding gourmets, spaces, leisures, etc. Our not so long but proud history includes covers like <Time of Tree>, <My French salad>, <Adventure of chasing a house>. We are always open to any suggestion for our ambitious future.

T 02-6242-9516
breadbook.info@gmail.com

04556 서울 중구 퇴계로41길 39 (인현동2가, 정암프라자) 703호
703, 39, Toegy-e-ro 41-gil, Jung-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김태정(Kim Tae Jung) / 010-3002-3853 / breadbook.info@gmail.com

1994년 3월 '민음사 출판그룹의 어린이 브랜드 자회사'로 첫발을 내디딘 비룡소는 30여년간 국내 유아동 및 청소년 독자를 위한 책을 발간하고 있는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입니다. '꿈과 상상력이 비상하는 연못'이란 뜻의 비룡소는 어린이들이 좀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하기 전 한 번쯤은 머물다 가야 할 어린이들의 '성장의 연못'입니다. 비룡소에 담긴 의미 그대로, 비룡소는 어린이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보여 줄 수 있는 책, 교육적인 효과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이 그야말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림책에서부터 동화, 청소년 소설, 과학을 포함한 논픽션 책 등 다양한 내용의 그림과 글, 그에 걸맞은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책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ince 1994, as a subsidiary of Minumsa, BIR one of the leading children books publishers of Korea has introduced quality literature for pre-school children through young adults, including works by award winning authors and illustrators like John Burningham, William Steig, Ezra Jack Keats, Raymond Briggs, Michael Ende and also by world-successful Korean authors like Suzy Lee and Sun-mi Hwang.

BIR has its own Book Club program which was awarded the 2016-2018 Grand Prize of Book Club by Korea First Brand as well.

T 02-515-2000
F 02-515-2007
bir@bir.co.kr
bir.co.kr

06027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2 (신사동) 강남출판문화센터 4층
4F Gangnam Publishing Culture Center, 62, Dosan-daero 1-gil, Gangnam-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양숙현(Claire YANG) / 02-515-2000 / claire@bir.co.kr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Korean Science Technology Publisher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는 1988년 과학기술부 인가로 출판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 출판을 통하여 저술인의 발굴 및 전문 인력양성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ing Association was established in 1988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develop the publishing industry and expand the bas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ading popul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ub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are trying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such as the discovery of writers and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T 02-2272-9538
F 02-2272-9539
ksts538@daum.net
kstpapar.kr

04091 서울마포구 토정로 222 (신수동, 한국출판면허추진센터) 415호
415, 222,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

Korea Christian Publishers Association

(사)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통하여 기독교 출판사업을 발전시키고 기독교출판문화를 창달하며 나아가서는 기독교 문서선교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he Christian Publishing Association of Korea aims to develop Christian publishing businesses, promote Christian publishing culture, and further fulfill the mission of Christian document mission through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s.

T 02-3474-0820
F 02-3487-4636
kcpa1975@naver.com
kcpa.or.kr

06732 서울서초구 서암로 19 (서초동, 서초월드오피스텔) 905호
905, 19, Seocho-ro, Seocho-gu, Seoul, Korea

사단법인 한국대학출판협회는 1982년 설립되어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설치된 47개 출판부서를 회원으로 하는 출판단체입니다. 그동안 일본, 중국 대학출판부협회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동북아 3국의 대학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위한 대학출판인 연수회 개최, 대학출판 유공자 포상, 대학출판 우수도서 선정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출판 관련 조사연구, 대학출판부서 간의 정보 교류, 회원교 출판 도서 유통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 및 출판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ses was established in 1982 and has a history of forty years, and is a publishing organization with 47 publishing departments in four-year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association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publishing culture in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rough constant exchanges with University Press Association in Japan and China.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strives to improve Korea's higher education and publishing culture by holding a university publishing training session, award

저작권 담당자 김정규(JEONG KYU KIM) / 010-9419-4766 / jeongkyu@knou.ac.kr

T 070-7537-2261
akupress@naver.com
akupoc.kr

02450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HJFS Knowledge Contents PRESS, 107, In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한국학술출판협회는 1992년 5월 12일 창립되었고, 2009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학술출판인 정신을 바탕으로 우수학술출판, 우수학술전자출판, 학술 POD 사업활동을 통해 최고의 학술출판의 정보교환과 환경을 만들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출판 개발 및 국제적인 학술출판 교류 또한 확대함으로써 한국 학술출판문화 발전과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The Korean Academic Publishers Association was established as a subsidiary corporation.

Based on the spirit of the right scholarly publisher, we will create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environment of the best academic publishing through excellent academic publishing, excellent academic electronic publishing, academic POD business activities. It is an organization that aims to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T 02-703-7477
F 02-703-7478
acadepia@daum.net
kspas.or.kr

04091 서울 마포구 토정로 222 (신수동, 한국출판민권진흥센터) 418호
41810 Korea Academy Publishing Association, 222,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사회평론은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용선생’ 시리즈와 같은 어린이 도서를 비롯해 ‘난처한’ 시리즈 등의 인문 교양서, 국어교육, 사회복지학, 미술사 분야 등의 교재 · 학술서, ‘Bricks’의 영어교육 도서들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 아름다운 사람들’.

사회평론은 좋은 책이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믿습니다.

Sahoipyounnon is a Korean publisher founded in 1991. Since then, we have been publishing various books in a wide range of fields from liberal arts, humanities, social welfare studies, art history to children’s books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materials.

‘Good books, Good people’.

Sahoipyounnon believes in the good influence of good books.

T 02-326-1182
F 02-326-1626
marketer@sapyoung.com
sapyoung.com

03993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56 (동교동, 사명빌딩) 2층
2fl. 56, World Cupbuk-ro 6-gil, Mapo-gu, Seoul, Korea

‘산란’은 작은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끝없이 흩어져나가는 현상, 작가에게는 브레인스토밍을 의미하며 알을 낳는다는 의미,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경이로운 과정을 말합니다.

출판사 산란이 당신을 통해 담고 싶은 것은 단 두가지. 바로 ‘산’과 ‘알’입니다.

이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큰 그림’과 ‘디테일’을 뜻하며 위 두가지 뜻을 품고 함께 산란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겪기를 희망합니다.

Mountain.egg(Scattering) is a phenomenon such as small particles collide with each other and scatter endlessly.

It means scattering of thoughts and laying eggs for writers, and refers to the phenomenal process of stubbornness of a work.

There are only two things that the Mountain.egg(scattering) publisher wants to accomplish through you.

It’s “mountain” and “egg.”

This means the “big picture” and “detail” needed to become a writer, with the above two meanings, I hope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spawning together.

T 010-8637-2805
F 0504-382-3775
booksanran@gmail.com
www.instagram.com/mountainegg

1441 경기 부천시 고리동로 16번길 34-1, 1층
1F. 34-1, Goriul-ro 16beon-gil, Bu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산지니는 산에서 태어나 가장 높고 멀리 나는 매라는 뜻으로 척박한 지역출판의 환경 속에서 오래 버티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문, 사회, 정치, 문학 등의 분야에서 600여 종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책, 오디오북 등으로 읽기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태국, 대만, 몽골, 홍콩, 베트남, 프랑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판권을 수출하는 등 해외 저작권 수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출판학회로부터 경영·영업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산지니 직원들이 함께 집필한 지역출판 생존기 『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를 펴냈습니다.

In Korean, sanzini refers to an aged native Korean hawk that is known to fly the highest and endure the greatest of all birds. The publishing company Sanzini is founded upon the vision of sustaining and thriving in the poor publishing environment of Korea, like a sanzini.

Since its founding in 2005, Sanzini has published over 600 covers on diverse areas including humanities, social studies, political subjects, and literature. In recent years, we have exported book copyrights to Japan, Thailand, Taiwan, Russia, Mongolia, Hong Kong, Vietnam, China, France and Malaysia.

T 051-504-7070
F 051-507-7543
sanz5047@naver.com
www.sanzinibook.com

48058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우동, 부산문화콘텐츠추진정책스) 613호
613 ho, 140, Suyeonggangbyeon-daero, Haerundae-gu, Busan, Korea

다양한 어린이 관련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출간하는 콘텐츠 회사입니다.

복잡한 내용들을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여행가이드북 시리즈 '안녕 나는' 시리즈들을 소개합니다. 『안녕, 나는 해외여행을 떠나』를 비롯해 『안녕, 나는 제주도야』 등 다양한 여행

지의 매력을 소개하는 도서들을 메인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컬러링을 통해 역사를 배울수 있는 도서도 함께 소개합니다.

T 070-8227-4024
F 0507-71-3816
down@sangsangpook.kr
sangsangpook.kr

1040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9 (장항동, 대양빌딩) 607호
607/briefcommunication, 39, Jeongbalsan-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작은 별들이 모여 새벽하늘을 빛나게 하듯, 작은 언어가 모여 누군가의 감성을 채웁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무심코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만큼의 작은 것들을 모아 새벽하늘을 빛나게 만들 만큼 소중한 것으로 펼쳐 내는 소규모 출판사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의 감성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벽의 감성을 모아 책을 만드는 새벽감성의 책을 만나 주세요!

We are a small book publisher. Our books carry feelings at dawn. We dream someone brings back the feelings by reading our books.

T 070-4300-1209
F 0303-3446-4446
dawnsensebook@gmail.com
chatbete.com

07704 서울강서구 강서로43길31 (화곡동, 롯데타운) 302호
302-31, Gangseo-ro 43-gil, Gangseo-gu, Seoul, Korea

새벽감성의 새벽, 자유분방한 고양이의 고양이. 자유로이 감성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곳 도서출판 새벽고양이입니다.

새벽고양이에서는 전 세계에 숨겨져 있던 근대문학을 발굴해 내어 알리는 프로젝트 메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여운 가득한 문학을 봉투 속에서 꺼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한일 공동 출간 프로젝트 종이비행기에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영상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요즘, 비행기 티켓 디자인의 봉투 안에 들어있는 히로시마의 아름다운 장면이 들어있는 카드로 글을 색다르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본질을 지키며 다양한 형태의 책을 출간하는 도서출판 새벽고양이입니다.

“A Cat At Dawn” makes books freely and emotionally.

We are conducting a project to excavate and inform modern literature hidden around the world. Literature that is short but gives a strong message can be read from the envelope.

Also, The Korea-Japan joint publication “Project Paper Plane” published an audio & video book that can be touched with the hands, seen with the eyes, and heard with the ears. Enjoy reading method with a card containing the beautiful scenery of Hiroshima and designed by an airplane ticket.

We publishes various forms of books while preserving the essence of books.

T 010-2957-2123
a_cat_at_dawn@naver.com
www.instagram.com/a_cat_at_dawn

08762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7길 63, 1층
Bookstore Saego, If, 63, Nambusunhwan-ro 157-gil,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생각의힘은 역사, 철학, 과학,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대중서 및 학술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연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모토 아래 지식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계 그리고 삶을 탐구하는 책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THINK publishes award-winning books on history, philosophy, science, economics, politics, and current affairs. Under our motto "The world, nature, and us are all connected." we link producers to consumers of knowledge and contribute to lively discourse in our society.

T 02-6925-4188
F 02-6925-4182
tpbook@tpbook.co.kr
www.tpbook.co.kr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6길 11 (합정동, 우대빌딩) 2층
2F, 11 Dongmak-ro 6-gil, Mapo-gu, Seoul, Korea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헌책방들을 모아 오래된 책의 가치를 담아 새로 만든 국내 최초의 공공헌책방입니다.

오래된 책은 낡고 헌 책이 아닙니다. 시대 정신과 사람의 체온을 품은 유기체입니다.

오래된 책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책보고, 이곳에 오면 오래된 책이 보물이 됩니다.

서울책보고는 서울 시민들이 책이 주었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서울책보고는 헌책의 가치를 느끼는 가치의 공간, 명사·지식인들이 기증한 도서를 함께 읽는 나눔의 공간, 매력 있는 독립출판물을 경험하는 향유의 공간,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맛보는 경험의 공간입니다.

'문화 예술 중심 감성 도시, 서울' 그 중심에 서울책보고가 있습니다.

Seoul CHAEKBOGO is a the first public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cre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at was created through the coming together of many used bookstores and which incorporates the value of old books.

Old books that arrive at the complex cultural space of Seoul CHAEKBOGO become treasures as Seoul CHAEKBOGO breathes new life into them.

It is the deepest wish of Seoul CHAEKBOGO that Seoulites will reflect on the priceless memories they have made with books.

At the center of 'Seoul, an emotional city centered on culture and art' is Seoul CHAEKBOGO.

T 02-6951-4977
F 02-6951-4975
bookbogo@bim.com.kr
www.seoulbookbogo.kr

05507 서울 송파구 오금로 1 (신천동) 서울책보고
Seoul CHAEKBOGO, 1 Ogeum-ro, Songpa-gu, Seoul, Korea

200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직지 세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4년 4월 유네스코 직지상이 제정됨으로써 “직지 세계화” 선포식에서 창립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책으로 대한민국이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상징하는 인류문화유산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를 민족문화유산에서 세계적인 기록유산으로 재정립하고 직지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인·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만든 국제적인 직지 세계화의 후원조직입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지식정보문화의 뿌리인 직지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한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Jikji Culture Association (WJCA) is the non-profit organization to promote and globalize Jikji, “the oldest known Korean book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and inscribed o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 043-219-1182
F 043-219-1256
jikji60864@hanmail.net
jikji.or.kr

28501 충북 청주시 흥원구 상당로 314 (내덕동, 청주책민문화산업단지) 338호
338, 314, Sanga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속뜻사전교육출판사는 우리나라 최초 한자어 국어사전을 펴낸 사전 전문 출판사로 성균관대학교 전광진 교수가 10년 노력 끝에 2007년 펴낸 『우리말 한자어 속뜻사전』을 시작으로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 『교과서 한자어 속뜻사전』, 『선생님 한자책』, 『우리말 속뜻 논어』, 『우리말 속뜻 금강경』까지 출판하였습니다. 속뜻사전에서는 한자어의 훈음을 달고 한자 한자 풀이하여 암기가 아닌 이해, learning By Hints 방식을 통해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전 과목 주요 3만 단어를 수록한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은 모든 단어에 영어를 병기, 속뜻이 풀이되어 사전적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대상 초·중등 교육부문'에 선정되었습니다.

CM Dictionary Publishing is an acknowledged dictionary publishing house that gave Korea's first Sino-Korean dictionary to the world. Starting from The Sino-Korean Compound Dictionary Focusing on Morphological Motivation (2017) compiled by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Jeon Kwang-jin with a decade of efforts, CM Dictionary Publishing has published a variety of dictionaries. We were crowned the best educational brand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ategory of the 2021 Korea Consumer Choice Education Awards.

T 031-794-2096
F 031-793-2096
lbhedu@hanmail.net
www.lbhedu.com

12928 경기 하남시 덕평북로 110 (덕평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103동 101호
103dong101ho, 110, Deokpungbuk-ro, Hanam-si, Gyeonggi-do, Korea

H29
솔리드 퍼블리싱
Solid Publishing

총류, 문학, 예술

솔리드 퍼블리싱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이야기들 속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통찰을 책의 형태로 만들어 전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한 주제들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편집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보기에 아름답고 읽기 편안하며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든 한 권의 책은 깊은 지식, 넓은 시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책을 통하여 세상에 유익이 되고자 하는 솔리드 퍼블리싱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There are countless thoughts and stories on every topic, and Solid Publishing is to find the best of the best and serve unique insights to our readers on a silver platter. As the world changes, the knowledge and wisdom we gain accompanies it and books must keep up with their journey. We publish books of timeless themes; they must be creative, fresh, easy to read, and easy to understand. Well-designed books offer us deep insights that serve as a bridge from the life that we knew to a new world of wonder. Solid Publishing publishes books that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 031-821-3217
F 071-7966-7245
solidpublishing@gmail.com
www.solidpublishing.com

11757 경기 의정부시 원서로 45 (금오동, 풀퀘터(남프라자) 702 61호)
Suite 702 61 45, Cheongsu-ro,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J19
솜프레스
sompres

사회과학, 예술, 문학

솜프레스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배현정이 운영하는 1인 출판사이자 그림 스튜디오입니다.

솜처럼 흩어져있는 단어들을 모아 문장을 만들고, 실을 짜고 천을 깎듯이 글과 그림을 지어서 포근한 한벌의 옷 같은 책과 물건을 만들어 갑니다.

Sompres is a Seoul-based independent publisher and studio runs by artist Bae Hyunjung. It puts words together in sentences like gathering the cotton, creates essays and drawings as making thread and weaving cloth, and publish books like making nice soft clothing.

T 010-2681-6648
F 02-734-3106
tosompres@gmail.com
www.instagram.com/som_press

04051 서울 마포구 신촌로 2길 19,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312호
312, 3F, Platform P. 19, Sinchon-ro 2-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썬더코믹스는 실험만화와 독립만화를 제작하는 1인 출판사입니다. 2016년 영국의 ASP로부터 시작하여 bubble thought, 독일 코믹인베이션, 일본 도쿄아트북페어 등에 참가했으며, 본인의 작품과 출강하는 대학의 학생들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Thunder Comics is an artist-led publishing house run by artist Jung Thunder (Eunji Jung) based in Seoul, South Korea. We are focused on various print media and conduct experimental comic making and methods of publication research.

Starting with ASP in the UK in 2016, we introduced our works to bubble through, Comic Innovation in Berlin and Tokyo Art Book Fair in Japan.

T 010-8878-6419
jie6419@gmail.com
thundercomics.net

04399 서울 용산구 한남동 809501호
501, 42, Hannam-daero 27-gil, Yongsan-gu, Seoul, Korea

손에 닿는 종이의 느낌과 그림이 가진 감정, 그리고 글과 이미지가 빚어내는 생각의 전개에 집중하여 독자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그림책을 만듭니다.

We create picture books that ask questions in the reader's mind by focusing on the feeling of paper touched, the emotions of pictures, and the development of thoughts created by texts and images.

T 02-322-7331
somebooks.shop@gmail.com
somebooks.kr

03979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3길 8 (연남동, SOME)
Somebooks, 8, Seongmisan-ro 23-gil, Mapo-gu, Seoul, Korea

아드헤는 형용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Adjetivo의 앞부분 발음입니다.
주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형용사처럼 독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아드헤는

독자를 다양하게 형용해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1인
독립출판사입니다.

지금까지 세 권의 시집 『82.7』, 『자음과 모음과 마음들』, 『즉석시집』과
한 권의 에세이 『오늘 업서를』를 출간했으며 앞으로도 독자의 마음에 남는
책을 만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ADJE is the first pronunciation of the Spanish word Adjetivo,
which means adjective.

Like an adjective that can not exist without a subject, an ADJE
can not exist without a reader.

It is a one-man independent publishing company that effort to
create books that can be described in various ways by readers.

So far, three collections of poetry ('82.7', 'Consonants, vowels
and hearts', 'Instant Poems') and one essay ('Today's Postcard')
have been published. In the future, we are working on making a book
that will remain in the minds of our readers.

T 010-9707-5201
sis@201@naver.com
www.uruk.kr/leh9

36066 경북 영주시 원당로 225번길 67, 101동 1201호
101/1201, 67, Wondang-ro 225beon-gil,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36066)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학습법, '초개인화 러닝'의 시작, 아이스크림
홈런은 세계 최초로 '유해 사이트'가 차단된 초등 스마트 학습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멀티미디어 디지털 콘텐츠로 학습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효과적인 학습관리로 초개인화 러닝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The start of "Super Personalized Learning" by the i-scream
Home Learn.

The i-scream Home Learn knows how I learn more than I
know.

Learn with the world's most extensive multimedia digital
content. It is the world's first elementary school smart device that
blocks "hazardous sites." With effective learning management
combining big data analysis and AI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e have opened the era of super-personal learning.

T 1544-0910
173018919@i-screamedu.co.kr
home-learn.co.kr

061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83길 15 (대치동)
i-screamedu, 15, Teheran-ro 883-gil, Gangnam-gu, Seoul, Korea

아이윙은 디지털 세대의 영·유아가 독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독서습관 전자책(그림책) 서비스로 이용자가 참여한 오디오북을 글로벌로 공유하는 개념의 App 플랫폼과 고양이 모양의 IOT 디바이스, RFID 카드(카드북)를 활용하여 아이들 스스로가 원하는 카드(도서)를 선택하여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는 아이윙TV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120여개 출판사의 도서 7000여권이 입점되어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언어 유창성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활용이 되고 있으며, 그림책 콘텐츠의 언어 번역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IWING is a reading habit e-book (picture book) service that helps digital infants and toddlers access reading easily, and provides IWING TV service that allows children to choose their own card (book) using a cat-shaped IOT device and RFID card (cardbook).

It is a global service with 7,000 books from 120 domestic and foreign publishers, and is selected and used as a language fluency program in libraries,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elementary schools, and it is a product that can easily enter the global market without any cost.

T 02-856-6882
F 0504-207-4493
iwingbook@gmail.com
www.iwingtv.com

10524 경기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36번길 46 (행산동, 에일클리닉빌딩) 401호
413, 46, Muwon-ro 36beon-gil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Korea

저작권 담당자 김유정(KIM YU JUNG) / 010-3006-4493 / iwingbook@gmail.com

아침달은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입니다. 2018년 아침달 시집 출간을 시작으로 산문집, 소설, 그림 에세이 등 총 30여종의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독자의 서가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남동에 작은 동네 서점 아침달 북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h-Chim-Dal is a poetry-based publishing company. With the initiation of Ah-Chim-Dal Poetry Series in September of 2018, we have continued to pioneer slowly but steadily. We dream of placing literature in between the layers of everyday life. We desire to publish books that will lie on bookshelves of readers for a long time. Ah-Chim-Dal also runs a small bookstore under the same name: Ah-Chim-Dal Bookstore.

T 02-3446-5202
F 02-3446-5208
designsuda@gmail.com

03980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53-16 (연남동) 2층
2F, 153-16, Seongmisan-ro, Mapo-gu, Seoul, Korea

아트앤아트피플은 할 말이 있는 아름다운 책, 생각과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모든 형태의 예술과 모든 장르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종교, 연령 또는 성별의 장벽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간성을 육성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Art & Art People is a small publishing house with a particular interest in beautiful books that have something to say, books where thought and beauty intersect. All forms of art and all genres are of interest to us. But only insofar as they put imagination to work nurturing the common humanity in all of us, beyond barriers of race, religion, age or gender.

T 070-7719-6967
F 02-6442-9046
artnartpeople@gmail.com
www.artnartpeople.co.kr

07535 서울강서구 양천로67길32 (영향동, 신동아이파크) 103동 608호
103 608, 32, Yangcheon-ro 67-gil, Gangse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김철웅(kim Chul Woong) / 010-9046-6967 / artnartpeoplekr@gmail.com

2018년 설립된 아홉프레스 출판사는 스치는 순간을 글로 기록하고 있는 작가가 만든 1인 출판사입니다. 책에 담긴 '9'만큼의 이야기를 읽고, 본인의 '1'만큼의 이야기를 떠올려 마침내 '10'으로 채워진 자신만의 책을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대경 '루뵈' 사이로 빛이 비쳐 그림자가 표현된 로고에서 알 수 있듯, 당신이 잊고 있던 작은 순간들, 흘러보낸 감정들을 떠올릴 수 있는 작은 돋보기 같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간 책으로는 『나의 포근했던 아현동(개정판)』, 『ANYWHERE;어디에서나』, 『스콜라 시리즈 1. 바다가 필요한 이유』, 『세 개의 단어, 그리고 십 분』, 『스키터』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서점과 도서관에서 "나만의 책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h-hope Press, established in 2018, is a self-publisher of the author who captures and writes of fleeting moments in life. The publisher hopes its readers complete their book of 10 with 9 from stories they read from books and with 1 from personal stories that arise after reading. As the logo expresses the shadow created by light that travels through a loupe, Ah-hope press books are like small magnifiers that bring lost memories and forgotten emotions and feelings back to the readers.

T 010-9728-3349
sah00247@naver.com
www.instagram.com/ahhope_press

10236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01번길 33-31, 201동 402호
33-31, Tanjung-ro 101beon-gil, Ilsanseo-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안그래픽스는 '지성, 창의'의 정신을 가지고 디자인 출판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글과 세련된 디자인의 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정보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및 건축 분야의 좋은 책을 기획 출간하며, 우리 고유의 디자인 요소를 오늘날 복원해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작업과 디자인의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출판에 힘씁니다.

앞으로도 안그래픽스는 정보의 디자인화, 디자인의 사회화를 지향하며 좋은 책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By the mind of 'Intelligence, Creativity', Ahn Graphics has been published the most professional, creative, critical contents and exquisite books in the design publishing industry.

We develop and publish resourceful books on typography, informational design, brand design, and architecture. In addition, we strive to revive Korean design elements today to construct the identity of Korean design, as well as to study and publish the social publicity of design.

Ahn Graphics will continue to publish valuable books as moving forward to the designing of information and the socialization of design.

저작권 담당자 안마노(Ahn Mano) / 010-3228-1660 / agbook@ag.co.kr

T 031-955-7755
F 031-955-7744
agbook@ag.co.kr
agbook.co.kr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125-15 (문발동, 안그래픽스) 2층
2F, 125-15,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안전가옥은 '모든 이야기들의 안식처'라는 타이틀 아래 잠재력 있는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원천 스토리를 기획, 개발하는 스토리 프로덕션입니다. 창작자와 스토리 PD가 협업하는 '프로듀서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개발하며,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지향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세련되게 해결해드립니다, 백조세탁소』, 『저승 최후의 날』 등 오리지널 장편소설과 앤솔로지 시리즈, 쇼-트 단편집 시리즈를 포함하여 2022년 4월 기준 총 35종의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안전가옥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안전가옥 홈페이지(safehous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fehouse, "The Haven of All Stories,"

We believe good stories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way people think. For this reason, we build a healthy ecosystem of story and excavate stories left undiscovered to enable more people to contribute to making a better world.

Safehouse, "the haven of all stories," is a story production that is a reliable partner for collaboration to creators and a window of delivering "fun" and "meaningful" stories to readers.

T 02-461-0601
mo@safehouse.kr

04779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5 (성수동7가, 헤이그라운드) 203호
203, 5, Ttukseom-ro 1na-gil, Seongdong-gu, Seoul, Korea

야옹서가는 20년간 고양이책 작가로 활동해온 고경원이 2017년 7월 창립한 고양이 전문 1인 출판사입니다. 야옹서가란 고양이 울음소리를 한국식으로 표기한 '야옹'과, 고양이책으로 가득 찬 책꽂이를 뜻하는 '서가(書架)'의 합성어입니다.

야옹서가는 '고양이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길고양이와 유기묘가 줄어들고, 고양이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데 야옹서가의 책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바랍니다.

Yaong Seoga was created in July 2017 as a one-person publisher specializing in cat books by myself after having written books on cats for 20 years. Our company's name starts with 'ya-ong' which is the Korean onomatopoeia for the sound cats make and we have combined it with the word 'books'.

Yaong Seoga's mission is to make books that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cats. We truly wish for Yaong Seoga to influence society so that there are fewer abused street cats and abandoned cats and more people start thinking of cats as part of their family.

T 070-4113-0909
F 02-6003-0295
catstory.kr@gmail.com
catstory.kr

03925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 400 (삼암동, 서울산암진흥원) 5층 19호
19, 5F, 400, World Cup bk-rd, Map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고경원(Ko Kyoung Won) / 010-6201-1747 / catstory.kr@gmail.com

평범한 우리들의 깊은 이야기, 글ego입니다.

콘텐츠의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자신만의 콘텐츠 경쟁력으로 그를 뛰어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작품에서 드러내는 특수성이 대중의 보편적인 정서에 닿을 때, 그 작품은 신선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 한 편에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이 하나쯤 있습니다.

글ego는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를 여러 관점에서 돌아보고, 그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자아실현적 글쓰기를 지향하며 창작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함께합니다.

Our ordinary heart-to-heart story. We are EGOWRITING.

The lines between content creators and consumers are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Even if they lack expertise in the traditional sense, ordinary people may outperform it in terms of content competitiveness.

When the specialty revealed by the creator in his/her work reaches the general public's sentiment, the work can form a new sympathy. And on one side of our seemingly ordinary life, there is at least one such deep story.

We take the first step with ordinary creators by helping them to start with self-fulfilling writing.

T 010-8437-2888
writing4ego@gmail.com
egowriting.com

06120 서울강남구 강남대로 118길 24 (논현동) 3층
31floor, 24, Gangnam-daero 118-gil, Gangnam-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won@egowriting.com

J19
에디시옹 장물랭
Editions Jean Moulin

책의 물질적 측면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쇄와 종이, 잉크와 제본을 연구합니다. 주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과 19-20세기의 책들을 복간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 독립출판 작가 '로버트 헌터'와 '툼 골드'의 작품들을 국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We publish graphic novel and early 20th century Reprint book. We study paper, ink, print machine and book binding for the purpose of increase book's beauty in terms of a material value.

예술, 아동

T 010-3001-6854
F 02-6442-5589
aryujea@naver.com
www.instagram.com/editions_jeanmoulin

07285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3-602
3-602, Seonyu-ro 9-gil 31,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G29
에이삼십이
A32

예술

A32입니다.
우리는 미디어 제작 업체로서 이해를 주제로 하는 오리지널 미디어를 제작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관이 미디어에 담겨 사회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We are A32. As a media production company, we produce original media with the theme of understanding.

I hope that various stories and values will be contained in the media and delivered to society.

T 02-498-7013
F 02-498-7013
a32life@gmail.com
a32life.com

05085 서울 관진구 독성로 508 (거암동) 12층
2F, 508, Tuukseon-ro, Gwangjin-gu, Seoul, Korea

FFL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크리에이티브 집단입니다. 인간학 서점 '믿음문고'를 시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탐구하고 '마인드그래프'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합니다. FFL이 지향하는 가치를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에 담아 사람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FFL is a creative group that constantly thinks and researches to help people live a happier life. Starting with the anthropology bookstore 'Belief Bookstore', we explore people's minds, and through the 'mindgraph' project, we exist to serve as a guide for people to make a better me. We strive to create a better world by communicating with people by putting the values

T 070-7776-3384
F 0504-211-8693
nur@faithforlove.com
www.fathforlove.com

06748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95-4, 1층
06748 95-4, Yangjaecheo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2014년부터 시작한 작가 중심의 소규모 출판사입니다. 정오의 따사로움과 열정을 담은 책을 만들고자, 옛눈북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그래픽 아트웍 등 다양한 형태의 시각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틀과 형식을 깨는 경계 없는 이야기를 꿈꿉니다.

Atnoonbooks is an artist-oriented publishing house dedicated to creating stories without any frames nor boundaries.

The house was established by an author in 2014 and now based in Seoul. As noon represents, we hope to bring the heartwarming enthusiasm through our books that feature various forms of visual image, such as illustrations, comics, photographs and graphic arts.

T 010-4880-8215
F 02-6447-4550
atnoonbooks@naver.com
www.atnoonbooks.net

03989 서울 마포구 연남로 30, 105/1103
105/1103, 30, Yeonnam-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2005년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시리즈로 시작하여 아름다운 국내외 그림책, 어린이·청소년 문학, 삶에 등불이 되어 줄 인물 이야기와 역사서를 펴내고 있다. 책이 즐거움을 주는 놀이가 되길 소망하며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해 만들어 간다. 국내 대표 도서에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인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2020 화이트 레이븐즈 선정도서이자 북스타트 선정도서인 『나는요』, 2020 북스타트 선정도서 『오줌싸개 시간표』, 2021 북스타트 선정도서 『고양이야 다 모여!』와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시리즈(전 13권)가 있다. 볼로냐 라가치상 최우수상 수상작 『나무집』(마리예 & 로날트 톨만), 뉴욕타임스 올해의 그림책 『곰의 노래』를 비롯한(벵자맹 쇼) 다양한 그림책을 번역 출간했다.

Yeoyoudang, named after the library of an old Korean scholar,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has published various books for children and youth, starting with the Learning about Korean History series in 2005. Since then it has gone on to publish beautifully written and illustrated books for children and youth from both home and abroad, including novels, books on historical figures, history, and humanities, that serve as a beacon in life.

[오디오북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No.1 오디오북 기업]
주식회사 오디언소리(www.audien.com)는 2011년 오디오콘텐츠 제작 및 유통 전문기업으로 출범하여 국내 오디오 콘텐츠 사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오디오북 전문 제작시스템 도입
15년 이상의 제작 노하우, 600여 명의 전문 성우들과 함께한 연출, 약 15,000여권의 작품 보유 및 서비스, 베스트셀러 위주로 시·에세이·오디오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제작

국내 최대 제작 및 유통 인프라 보유
500여개 출판사와 제휴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오디오북으로 제작, 2010년 국내 최초 오디오북 키오스크 상품 개발 및 출시, 공공 도서관, 국공립·대학 도서관, 학교·기업·정부기관 등 약 700여개 기관(B2B) 유통 인프라 보유

[The No.1 audiobook company leading its market in Korea]
Established in 2011, AUDIEN has been leading the audio content business in Korea.

Introduced the first audiobook production system in Korea
— 15 years of experience with 600 professional voice actors
— 15,000 books and its online services

Korea's larges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frastructure
— Audiobook production with 500 publishing partners
— Launched first audiobook kiosk products in Korea in 2010
— Distribution infrastructure of 700 organizations (B2B): schools, libraries, businesses, and government agencies

와이젤리 도마뱀출판사는 인문학과 문학을 기반으로 한 인문교양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통해 소통하는 세계를 말하고자 하며, 문학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세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와이젤리에서는 동양철학, 의학, 인문학 분야의 책을 발간했으며, 도마뱀출판사에서는 문학과 인문교양서, '문예단행본 도마뱀' 시리즈를 펴내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이 숨 쉬는 아름다움이 있는 책마을을 꿈꾸는 와이젤리 도마뱀출판사는 문학인, 학자, 다양한 문화 예술인들과 함께하며, 항상 새로움을 지향하고 이 시대에 올바르게 읽힐 책들을 기획합니다. 출판사 안팎에서 낭독회, 독자와의 만남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독자와 소통하고자 합니다.

Dreaming of a beautiful book village where intellect and emotions exist in harmony, Y-Gelli Domabaem Books works with literary scholars, researchers and various cultural artists. The company always aims for newness and plan books that can be read properly in our modern age. Together with budding authors and leading writers, it publishes series of books on Eastern Philosophy and Oriental Medicine, as well as literature that resonates with the society.

T 02-744-8846
F 02-744-8847
aurmi@hanmail.net
blog.naver.com/ybooks

03057 서울 종로구 계동2길17-13 (계동1동)
1F, 17-13, Gyedong 2-gil, Jorngno-gu, Seoul, Korea

시각적 서사 중심의 아트북, 그래픽 노블, 그림책을 만드는 독립출판 스튜디오. 조쉬와 미바 두 사람의 세계를 흔든 일련의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갑니다.

Creating visual narrative centered Art Books, Graphic Novels, and Picture Books. The stories are woven based on a series of events that shook the world of Josh and Miba.

T 010-5028-3993
woodparkpicturebooks@gmail.com
www.woodparkpicturebooks.com

18034 경기 평택시 소사3로22, 204동 801호
#801, 204dong, Sosas3ro 22, Peongtaek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우리나비는 다양한 삶의 형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소리들을 작가와 독자가 허물없이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래픽노블과 어른속의 아이, 아이속의 어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림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Woorinabi Publishing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3 with a goal is to publish books that warm the hearts of readers like the spring sunlight. Woorinabi specializes in publishing illustration books and graphic novels for the children in all of us. With a belief that books are the mirrors reflecting the society, Woorinabi aims to publish books that enable us to empathize with others while empowering us to live for the betterment of everyone.

T 070-8879-7093
miche161@naver.com
www.woorinabi.com

14478경기 부천시 적동로3번길 17 (적동) 1층
1F: 17, Jakkdong-ro 3beon-gil, Bucheon-si, Gyeonggi-do, Korea

우리학교는 어린이·청소년 전문 출판사입니다. 교육적 가치를 담은 '세상 진지'한 책에서부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유쾌 발랄'한 책까지 두루 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학교이듯 우리학교의 책들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아이들의 호기심을 밝혀 주는 지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한 권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9년에 문을 연 이후 독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콘셉트를 고민하며 기획력이 돋보이는 국내서 출판에 힘써 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토론학교》 시리즈로 제52회 한국출판문화상 어린이청소년 부문을 수상하였고 대다수의 책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따세,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등의 기관에서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Woori School is a publishing company specializing in children, youth books. We have a broad spectrum from 'very serious' books containing educational values to 'pleasant and lively' books for communicating with teenagers.

The name Woori School presents a wish that our books help children explore a new world and reveal their curiosity, just as every school does in the world. We've published a lot of books with passion while considering communicating and sharing experiences with readers.

We've won the 52nd Korea Publishing Culture Award for the Discussion School series, and most of the books hav

T 070-4617-6627
F 02-6012-6092
woorischool@naver.com
www.woorischool.co.kr

03992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32 (동교동) 2층
2F: 32, Donggyo-ro 23-gil, Mapo-gu, Seoul, Korea

M29
우아한형제들
Woowa Brothers Corp

전자출판, 문학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이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도록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One)', 즉시 배달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B마트', 음식점 식부자재 쇼핑몰 '배민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드테크(food-tech) 기업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이 서체를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브랜드 상품을 만들고, 치몰리에 자격시험을 열고, 배민신춘문예를 개최하고, 또 책을 만드는 일들이 얼핏 사업과는 상관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고객과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Woowa Brothers is committed to making our daily lives happier through delivery. It is a food technology company that operates the delivery platform 'Baedal Minjok,' faster delivery service 'Baemin One,' online grocery ordering service 'B Mart,' etc.

Baedal Minjok offers digital fonts for free, sells branded goods, held 'Chimelier Qualification Exam' and 'Spring Literary Contest,' and published several books. Some might think they have no relation with its business, but we believe they set up the path to build up Baedal Minjok's brand identity and close relationships with its customers.

T 1600-7001
baezangelette@woowahan.com
www.woowahan.com

0554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 (한이동, 잠원빌딩) 2층
2nd floor, 2, Wiryeseong-daero, Songpa-gu, Seoul, Korea

K16
윤주사
UNJUSA

종류, 철학, 종교

도서출판 윤주사는 붓다의 가르침에 바탕하여 건강한 비판정신과 치열한 탐구정신으로 불교 인문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불교학의 학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여 펴내는 학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Unjusa Publishing Co., based on the teachings of the Buddha, is opening new horizons in Buddhist thought with a healthy spirit of criticism and a fierce spirit of inquiry, through which it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mankind. In particular, Unjusa is interested in discovering and publishing a variety of novel topics with a critical min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academic discourse of Buddhist studies.

T 02-926-8361
unjusa88@hanmail.net

02832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7가 (동소문동4가, 영식빌딩) 3층
3F, 67-ga, Dongsomun-ro, Seongbuk-gu, Seoul, Korea

움직씨 출판사는 퀴어 페미니즘 출판사로 '감각'과 '혁명'을 중시하는 편집인과 작가가 만든 독립 출판사입니다. LGBTQ+, 젠더, 계급에 관한 문학, 그래픽노블, 사회과학, 교양 책을 다루며 여성과 퀴어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책을 펴냅니다. 펴낸 책으로 미국 앨리슨 벡델의 베스트셀러 그래픽노블 『펀 홈』, 『당신 엄마 맞아?』, 『초인적 힘의 비밀』, 흑인 페미니스트 오드리 로드 시집 『블랙 유니콘』, 대만 구묘진의 『악어 노트』, 『몽마르트르 유서』, 한국 노유다 #metoo 글그림책 『코끼리 가면』, 슬로베니아 시인 브라네 모제티치 퀴어 그림책 『첫사랑』, 전 세계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에 맞선 『99% 페미니즘 선언』, 점성술책 『퀴어 별점』, 레즈비언 일상 만화 『레생보』 등이 있습니다.

Oomzicc publisher, the first 'Queer Feminism' publisher founded in Korea, is an alternative publishing of editors and writers who share value of keen sensibility and the revolutionary. Oomzicc pursuits the spirit of Claude Cahun and Marcel Moore, the surrealist artist, and aims to publish a wide range of books that would give volume to the voices of women and LGBTQ+. Oomzicc is known as the publisher of Roh yuda's graphic memoir 『The ELEPHANT MASK』 and the Korean edition of Qiu Miaojin's a Taiwanese novel 『NOTE OF A CROCODILE』, Alison Bechdel's bestselling graphic novel 『FUN HOME』.

T 031-963-2238
F 02-2261-1213
oomzicc@queerbook.co.kr
www.queerbook.co.kr

1055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73, 705동 808호
808, 73 Samwon-ro,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10550, Republic
of Korea

워크룸 / 워크룸 프레스

2006년 12월 서울 창성동에서 시작한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겸 출판사입니다. 2013년부터 임프린트 작업실유령도 함께 운영합니다. 동시대 시각 문화와 예술, 문학, 인문, 실용 등에 관심을 두고 책을 펴냅니다. 주요 총서 및 시리즈로 《제안들》, 《사드 전집》, 《사뭇일 베키트 선집》, 《입장들》, 《양투안 블로딘 선집》, 《실용 총서》, 《유령작업실》, 《이동시 총서》 등이 있습니다.

The graphic design studio Workroom was founded in Changseong-dong, Seoul in December 2006. Workroom Press is the studio's publishing arm, releasing books on a regular basis with a focus mainly on today's arts & culture, literature, humanities, and practical knowledge. Since 2013, it has also been operating an imprint called Workroom Spector. Some of the publisher's well-known compilations include the literature series Propositions and Positions, the complete Marquis de Sade collection, a Samuel Beckett anthology, an Antoine Volodine anthology, and the Practical Knowledge series.

T 02-6013-3246
F 02-725-3248
wpress@wkrm.kr
workroompress.kr

03043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 16길 4 (창성동) 2층
2F, 4, Jahannun-ro 16-gil, Jongno-gu, Seoul, Korea

월간한옥(Korean Heritage Magazine)은 한국건축을 비롯하여 한옥, 한복, 공예, 한식 등 한국 고유성을 담은 헤리티지 전문 매거진입니다.

한국의 전통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영감의 모티브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글과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월간한옥을 통해 한국의 헤리티지를 더욱 깊게, 더욱 넓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Hanok Magazine (Korea Heritage Magazine) is a cultural heritage magazine highlighting the traditions of Korea including its architecture, clothing, cuisine, and crafts.

The magazine provides writings and images that allow us to understand Korea's past, influences on the country's identity, and provides a view into inspirations for its future.

Hanok Magazine will provide you, the reader, with a deeper and clearer understanding of Korean heritage and culture.]

T 02-741-3576
curator@hanokmag.com

04550 서울 중구 을지로 114-6 (을지로3가, 흥원빌딩) 307호
307 114-6, Eulji-ro, Jung-gu, Seoul, Korea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책을 만듭니다.”

2016년 우울증 수기집 『아무것도 할 수 없는』을 시작으로, 『망가진 대로 괜찮아요』, 『일일 다정함 권장량』, 『오늘 밤만 나랑 있자』, 『변변찮은 삶을 위한 변명』 등의 출판물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삶에서의 외로운 순간들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작은 불씨 같은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Books for lonely people”

T 010-8855-2778
F 0504-215-1890
warmgrayandblue@gmail.com
www.instagram.com/warmgrayandblue

02846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86-2 지층
B1, 86-2, Dongsoimun-ro,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윤에디션은 독자와 작가의 직접적인 소통을 즐기며, 책이라는 종이의 물성을 최대한 살린 그림책을 선보이고 싶어하는 그림책작가 김윤정, 최덕규의 독립출판사입니다. 대표도서로 『엄마의 선물』, 『빛을 비추면』, 『커다란 손』이 있으며, 롯데출판문화대상,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에디션의 모든 책은 윤에디션 스토어(www.yunedition.com)에서 독점판매되고 있습니다.

YUN Edition is the publisher of picture book Authers Yun and Deokkyu Choi and located in Republic of Korea. Most of books are picturebook, conceptual image-book and artbook. YUN edition is best known as the publisher of 'Mam's gift', 'In light' and 'Father's big hands' and all books are exclusively sold at the YUN Edition store, www.yunedition.com.

T 070-7517-0019
F 031-696-6633
yunedition@gmail.com
yunedition.com

10387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0 (주엽동, 자유포리차) 703호
703, 150, Juyeop-ro, Ilsansseo-gu, Goyang-si, Gyeonggi-do, Korea

T 02-3143-0651
F 02-3143-0654
ehbook@ehbook.co.kr
ehbook.co.kr

04035 서울 마포구 양화문1길 54 (서교동) 456호
from 4th to 6th floor, 54, Yanghwa-ro 1-gil, Mapo-gu, Seoul, Korea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책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바깥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는 힘.
우리의 삶은 책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출판사는 한 명의 독자라도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책,
많은 독자들이 함께 교감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읽과 열매가 모두 유용하면서 생명력이 강한 은행나무처럼 독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깊이 남는 좋은 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은행나무출판사는 “시대와 미래를 읽는 책, 재미있고 감동 깊은 책”을
모토로, 독자의 다양한 요구를 먼저 생각하는 열린 출판,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젊은 출판, 좋은 콘텐츠와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신뢰받는
출판을 지향합니다.

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A book could change the path of one's life. Books have force to do that. The force make us look into the inside of ourselves and watch the outside with deep concern. Lives of all of us would be expanded and more abundant with books. We EunHaeng NaMu Publishing co. endeavor to make books truly satisfying readers' desire even it might be only one person as well as provoking interchange and sympathy among readers.

EunHaeng NaMu is named after a viable tree Gingko which is a very useful plant with its leaves and nuts to human. We aspire to bring books making a profound impression and lasting long

이상복스는 “다음 세상을 위한 다른 생각”을 기치로, 사회와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연과 인간 삶의 대안을 모색하는 책을 만듭니다.

책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로 있지만, 훌륭한 책과 저자는 훌륭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상복스는 책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Under the banner of ‘A Different Thought for the Next World,’ The E-Sang Books has published books that look back on society and reality, and seek alternatives to nature and human life.

One of the reasons we make books is that we can ‘learn’.

Sometimes it’s different from what you think, but great books and authors are also great teachers.

The E-Sang Books believes that books can change people, world, and future.

T 02-6082-2562
F 02-3144-2562
beditor@hanmail.net

03958 서울시마포구 망원로 19 501호
501th, Mangwon-ro 19, Mapo-Gu, Seoul, Korea

2007년 아시아 예술사진전문지 『이안 IANN』 창간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사진집과 시각예술 도서를 출간해 왔습니다. ‘보는 눈과 사고하는 눈: 두 눈 [二眼]’이란 뜻의 이안복스는 사진과 도시, 매체 미학을 중심으로 ‘아트북&아티스트 북’에 주목합니다.

지속적인 해외 출판기획과 예술사진 국제교류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시대 시각문화로서의 ‘아시아-사진-아카이브’를 주제로 한국 사진사를 시각화된 기록예술로서 바라봅니다. 대표적으로 임응식, 이갑철, 이정진 등의 한국사진아카이브 시리즈가 있으며, ‘예술과 전시가 있는 서점’ 더레퍼런스를 운영하며 전시와 연계한 아트북 큐레이션을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예술 경험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founding of IANN magazines, specializing in Asian artistic photography, in 2007, we have published numer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photo books and visual arts literatures. IANNBOOKS, ‘iann(이안, 二眼)’ here meaning two eyes—one of sensing and the other of thinking, pays close attention to artbooks and artist books revolving around photography, city, and media aesthetics.

Our work bases on our continuous action in planning foreign publishing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bout artistic photography. Currently, with the triptych of Asia-Photography-Archiv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visual culture as the center of our discourse, we envision Korean history of photography as visualized archival art. One of our primary examples include Korean photographic archival series of Limb Eung Sik, Lee Gap Chul, and Jungjin Lee. Also managing The Reference—bookstore embracing art and exhibition—we interconnect artbooks with exhibitions for their curation in pursuit of providing a platform in which artistic experience could be mediated through books.

T 02-734-3105
iannbooks@gmail.com
www.iannmagazine.com

03042 서울 중문구 지하문로24길 44, 2F
44 Jahnamun-ro 24gil, Jongno-gu, Seoul, South Korea 03042

이리저리 굴러다니거나, 무심한 발길에 차이거나, 서랍 속에 처박힌 것들, 언제 썼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어쩌면 일부러 잊은지도 모르는 작은 것들의 가치를 다시 묻습니다.

Iyagikot is a picture book publishing company founded in 2012. We publish artistic and socially relevant picture-books created by passionate authors and artists, hoping that all people including children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ave compassion for others, and reach peace through picture books. We believe that in a time when all books are going digital, paper picture books should remain and impart a warm human touch.

T 070-8797-1656
F 02-6499-1657
iyagikot@naver.com
iyagikot.com

03974 서울마포구 연남로13길17 (상산동) 반창별당 2층
bunchang bld 2f, 17, Yeonnam-ro 13-gil, Mapo-gu, Seoul, Korea

이음은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경계가 없는 시대의 정신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지지합니다. 이음은 《과학잡지 에피》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과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업들을 엄선해서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음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생각을 교류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서 세계적인 사상가와 저술가들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음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비평, 그리고 예술 작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UM shares and supports the forerunner of the age without boundaries, which encompasses multiple disciplines, with readers. Currently, we are publishing the <Science magazine Epi> and carefully selected books of creative and new work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natural sciences, social sciences, humanities and literature.

EUM is also interested in exchanging ideas across language barriers, so we have published books by world-class thinkers and writers. EUM strives to provide the knowledge, criticism, and art works necessary for Korean society.

T 02-3141-6126
F 02-6455-4207
editor@eumbooks.com
www.eumbooks.com

04031 서울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52 (서교동) 안복빌딩 3층
52, World Cup buik-ro 1-gil, Mapo-gu, Seoul, Korea, 04031

J19
임시제본소
IMSIJEBONSO

강민선이 운영하는 1인 출판사이자 비정형 작업 공간입니다. 2017년에 독립출판물 『백 쪽』을 시작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도서관 사서 실무』(2018), 『월요일 휴무』(2018), 『여름특집』(2018), 『가을특집』(2018), 『나의 비정규 노동담』(2019), 『비행기 모드』(2019), 『외로운 재능』(2019), 『우연의 소설』(2020), 『자책왕』(2020), 『겨울특집』(2020), 『극장간: 기차와 영화가 만나는 곳』(2021), 『하는 사람의 관점』(2022) 등을 쓰고 만들었습니다.

It is a one-person publisher and unstructured workroom by Kang Min-seon. Books written and published include 『100pages』(2017), 『Librarian Working That No One Talk About』(2018), 『Closed Mondays』(2018), 『Summer Special』(2018), 『Autumn Special』(2018), 『My Irregular Labor Story』(2019), 『Airplane Mode』(2019), 『Lonely Talent』(2019), 『Fiction Of Coincidence』(2020), 『The King Of Self-Blame』(2020), 『Winter Special』(2020), 『Film Train: Where Trains And Movies Meet』(2021), and 『Perspective Of Player』(2022).

예술, 문학

T 010-4920-1012
 mingjeikang@naver.com
 www.instagram.com/kangmingjei

04002 서울 마포구 동교로17길 46-16, 301호
 46-16, Donggyo-ro 17-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J5
주 오렌지커뮤니케이션즈
Orange Communications

전자출판

오렌지커뮤니케이션즈는 사운드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오디오북 제작부터 검수, 납품까지 빠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여러 출판사와 제작·유통하고 있습니다.

21년간 운영해 온 자체 녹음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0여 트랙의 자체 제작 사운드 라이브러리로 글로벌 라이선스 음원을 제공합니다.

오렌지커뮤니케이션즈는 20여명의 작곡가, 사운드 엔지니어, 오디오 디렉터들이 만든 전문적인 사운드를 통해 출판사가 꿈꾸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에 함께하겠습니다.

Orange Communications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sound design. We have 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various publishers at home and abroad, establishing a fast and stable system for audiobook produ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We have our own recording and editing studio, which has been operating for 21 years, and offers global licensed sound sources with over 20,000 tracks of self-produced sound library.

We will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the publisher's dream audio content with decent-quality sounds created by our amazing team of composers, sound engineers and audio directors.

T 02-414-2486
 F 02-414-2480
 master@creators.co.kr
 https://www.notion.sev/

04043 서울 마포구 전대리로 43 (사교동) 동우빌딩 2층
 The 2nd floor of Dong Woo Building, 43, Jandari-ro, Mapo-gu, Seoul, Korea

주머니시는 사람들이 문학을 가볍게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고자 기획한 서적입니다.

담뱃갑 형태의 패키지에 20개의 작품으로 구성된 주머니시는 문학을 즐기기에, 선물을 하기에 좋습니다.

주머니시는 다양한 작가가 참여하는 서적입니다.

주머니시는 129명의 주머니시 작가와 협업하여 만든 시집으로 작가의 글을 소개하는 문학컨텐츠 플랫폼입니다. 판매를 통해 참여 작가에게 인세를 제공하고 작품활동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봄놀다' 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POCKETPOEM is a book was planned for people to read and share literature lightly.

POCKETPOEM consisting of 20 works has a unique shape like pack of cigarettes. So, this is good to enjoy and give gifts.

POCKETPOEM is a book diverse writers take part in.

POCKETPOEM is a book of poems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129 writers, and is a literary content platform that introduce the writer's works. POCKETPOEM provides royalties to participating artists through sales and supports their activities.

We are also preparing an online platform service, "Bomnolda".

T 010-4597-5823
F 031-935-0937
pocketpoem@mail@gmail.com
www.pocketpoem.co.kr

15577경기 안산시 상록구 원안대학로 60, 4층 청년큐브 7호
Room 7, 4F, 60, Hanyangdaehakro, Sangnokgu, Ansan City, Kyeonggi-do

디엠피북스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아트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외국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통한 저작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MP BOOKS are publishing company for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Art etc.,, We relations with manyforeign publisher and discuss with them for copyright.

T 02-579-8819
F 02-571-8819
dmpbooks1@hanmail.net
dmpbooks.co.kr

0678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71 (양재동, 한성빌딩) 102호
5112001, 71, Gangnam-daero 2-gil, Seocho-gu, Seoul, Korea

소미미디어는 '소미북스' '소미웹툰' 'S노벨' 'S코믹' '포미포미' 등의 다양한 출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미미디어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업계를 선도하며 종합출판사를 지향하는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책을 좋아하는 한국 독자에게 알찬 내용과 감동,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양질의 도서를 선보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미미디어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획과 연구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종합출판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Somy Media' is one of the leading publishing companies in the literary and comics field. We are publishing across every category and interest with the utmost care and enthusiasm for Korean readers. The Brands making up Somy media include: [Somy Books], [Somy Webtoon], [S-novel], [S-comic], [POMYPOMY]. We will always do our best to entertain readers and enrich their lives.

T 02-567-3388
F 02-322-7665
somymedia7@somymedia.co.kr
blog.naver.com/somybooks

04091 서울마포구 토정로 222 (신수동, 한국출판콘텐츠센터) 403호
403, 222,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한국을 대표하는 SF전문 출판사. 필리버스터를 떠들썩하게 했던 첫 책, 코리 닥터로우의 『리틀 브라더』(2015)를 시작으로 국외의 고전과 신작을 망라한 걸작 SF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김보영, 정세랑, 심너울, 천선란, 문목하 등 걸출한 국내 SF 작가의 소설을 출판하는 한편 다양한 신인작가를 발굴하여 SF문학의 저변을 다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1년 말 국내 최초의 SF 계간지 『어선 테일즈』를 창간하였으며, 2022년에는 5년 전의 기출간작인 정보라의 『저주토끼』(2017)가 부커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일개 회사로서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한국SF라는 장 전체가 확대되고 활성화하도록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시도를 지속하려 노력합니다..

Arzak is Korea's leading science fiction publisher. Starting with Cory Doctorow's 《Little Brother》(2015), we are actively introducing many masterpiece SFs from foreign classics to new works. In recent years, publishing novels by outstanding domestic SF writers such as Kim Bo-young, Jeong Se-rang, Shim Neoul, Cheon Seon-ran, Moon Mok-ha and etc, Arzak has been playing a huge role in discovering various new writers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SF literature. At the end of 2021, Arzak founded Korea's first SF quarterly magazine <The Earthian Tales>, and in 2022, Jeong Bora's 《Cursed Bunny》, which

T 02-324-3945
F 02-324-3947
decomma@gmail.com
www.arzak.co.kr

04050 서울마포구 양화로 156 (동교동, LG갤러리빌딩) 1428호
LG Palace Rm 1428, 156, Yanghwa-ro, Mapo-gu, Seoul, Korea

열림씨앤피는 누구나 책을 만들 수 있는 세상에서 창작한 글을 단 한 권도 의미를 담아 책으로 만들어주는 디지털 인쇄, 출판 기업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소량 제작 가능한 POD 시스템으로 1,000페이지 넘는 단일 공간에서 120억의 디지털 인쇄 장비를 통해 예폭시(박) 등의 후가공까지 One-stop으로 만족도가 높은 좋은 품질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 저자를 위한 기획출판, 자비출판 등의 다양한 출판 지원과 부설 디자인센터를 통한 수준 높은 디자인 제공 그리고 서울, 수도권 일부의 직배송 망을 구축한 물류 지원까지 함께 운영하여 저자가 창작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디지털 인쇄, 출판 기업입니다.

Yeolim C&P is a digital printing and publishing company that turns even a single piece of writing into a book in a world where anyone can make a book.

With a POD system that can be produced in small quantities at reasonable cost and time, we produce high-quality books with one-stop from a single space of over 1,000py to 12 billion digital printing equipment.

In addition, it is a digital printing and publishing company that allows authors to focus more on their creations by operating various publishing support for individual authors, providing high-quality designs through affiliated design.

T 02-2264-6820
22646820@hannail.net

13201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매치로 314 (삼대원동, 성남 센트럴비즈타워 1) 306호
306ho, 314, Galmaechi-ro,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주식회사 책은 책에 관한 잡지 <매거진 책>과 서울에 관한 잡지 <더서울라이브>를 만드는 출판사입니다. <매거진 책>은 문화, 예술, 사회 등은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 전반을 책과 같은 출판 미디어를 통해 들여다보는 매체입니다. 유쾌하고, 때로는 감동적으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논의 소재를 중심으로 수많은 책을 리뷰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니다. 더서울라이브는 한 곳을 지긋이 깊게 바라봤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서울의 숨겨진 매력에 주목합니다. 복잡하고 삭막한 대도시의 기존 이미지에서 즐거움과 편리함, 아름다움이 넘치는 장소로 서울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Established in 2014, The Company Chaeg has been an independent publishing company publishing two periodicals, Magazine Chaeg and THESEOULive. The philosophy behind Magazine Chaeg is that books are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media that convey arts and cultures as well as social currents. Wonder if there is any periodic publication representing the metropolitan city, Seoul? THESEOULive focuses on unraveling hidden jewels of Seoul. It is anticipated to change cliché of the city from a complex and desolate metropolis to a center full of joy, convenience, and beauty.

T 02-6228-5589
info@chaeg.co.kr
www.chaeg.co.kr

03015 서울 중로구 세검정로 243, 2층
2F, 243 Seogeomjeong-ro Jongno-gu Seoul

주식회사휴머니스트출판그룹
Humanist Publishing Group Inc

‘가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모토로 2001년 창립한 휴머니스트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교양 출판 브랜드입니다. 어린이에서 장년까지 독자의 생애와 함께하는 깊고 풍부한 지식, 교양, 학술 도서 1,000여 종을 출판해 왔습니다.

국내 저자 발굴에 주력하여 전체 목록의 9할 정도가 국내서이며, 2,000여 명의 저자와 함께해왔습니다. 2006년 ‘휴먼어린이’를 설립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교양서와 동화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시리즈 브랜드 ‘자기만의 방’과 Z세대를 위한 ‘곰곰문고’로 새로운 세대와 눈맞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과 가치를 갖고 실현해나가는 삶의 동반자로서 변화하는 지식 생태계에 발맞추어 책으로 시작하되, 책에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Humanist publishing group Inc. began the activities in May 2001. The company will publish work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 history, science, children's books, and comics both by Korean authors and foreign ones in translation. Humanist published more than 1000 books, and has grown into a leading publisher of Korea.

T 02-336-4422
F 02-334-3427
humanist@humanistbooks.com
www.humanistbooks.com

03991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76 (연남동,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사옥)
Humanist, 76, Donggyo-ro 23-gil, Map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조다영(Dayoung Cho) / 070-7842-9400 / royalty@humanistbooks.com

지구불시착
unplanned earth

지구불시착 출판사는 문학의 의외성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의식하는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unplanned earth Publishing Company was born for the unexpectedness of literature. I'm thinking of a variety of literature, e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 010-5122-3632
9illruwa@gmail.com
www.instagram.com/illruwa2

01803 서울 노원구 화랑로 46-4 (관동동, 관동2회민하우진) 1층
1,46-4,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김택수(kim taecksu) / 010-5122-3532 / 9illruwa@gmail.com

지콘디자인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한때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을 위한 창작소설과 종이모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작소설 『이드의 선택』, 『언덕위의 아루스』, 『스피사틀란의 젠더시스』, 『아웃랜드』를 출간했고 종이모형 책으로는 『아루스 테마파크』, 『재니멀스를 부탁해』 그리고 드로잉 북으로 『벨리타, 스피온의 별』을 출간했습니다.

Zicondesign creates novels that all children and adults in the world can read together. And make a paper model design book.
Novels ; ID's Choice / Arus on the Hill / Zenthesis of Spisatlan / Outland
Papermodel Books ; Arus Theme Park / Take Care of Zanimals
Drawing book ; Belita, the Planet of Spions

저작권 담당자 장형순(Jang Hyeongsun) / 010-4719-4346 / digitalzicon@naver.com

T 010-4719-4346
digitalzicon@naver.com
www.zicondesign.com

16009 경기 의왕시 황계로 27 (황계동, 휴먼시아 황계마을) 201동 1203호
BLDG 201 RM 1203, 27 Cheonggye 1-ro, Uiwang-si, Gyeonggi-do, Korea

쪽프레스는 2015년부터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블입니다. 출판을 바탕으로, 오랜 관심사, 바라는 문화, 살고 싶은 방식을 표현합니다.

jjokpress is a label that has been active in Seoul since 2015. Based on publishing, it expresses long-term interests, desired culture, and way to live.

T 070-818-5151
jjokpress@gmail.com
www.jjokpress.com

04109 서울 마포구 백범로 48, 2층
2F, 48, Baekbeom-ro,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K10
찰리북
Charliebook

아동

즐거운 상상 놀이터, 찰리북입니다.

A fun playground for imagination, Charlie Book.

T 02-325-6743
F 02-324-6743
charliebook@gmail.com

04031 서울마포구 동교로18길 33 (서교동) 201호
201, 33, Donggyo-ro 18-gil, Mapo-gu, Seoul, Korea

J17
참들
CHARMDOL

예술, 문학, 아동

(주)참들은 아트북, 컬러링북, 실용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바르고 단단한 책을 만들고 있는 출판사입니다. 독자가 믿고 볼 수 있는 좋은 책을 출간하고자 노력했었고, 그 결과 출간한 여러 책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서울시교육청 추천도서, 대교 눈높이 창의독서, 서울환경연합 선정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도서 등에 선정되어 책의 품질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Chamdol is a publishing company that produces books covering various fields, including fiction, non-fiction, art books, coloring books, and activity books.

Chamdol is actively publishing works of art including art books and coloring books.

We always attempt to publish high quality books that readers can trust in, and as a result, many books published by us are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by Seoul Environment Association, and Korea Children's Hall for their quality and credibility.

T 02-518-3919
F 0505-318-3919
book@chamdol.com

04044 서울마포구 독막로3길 51 (서교동, 서죽빌딩) 102호
102, 51, Dongmak-ro 3-gil, Mapo-gu, Seoul, Korea

책읽는고양이는 동물병원 안에 있는 작은 출판사입니다. 동물병원과 출판사를 오가는 고양이들은 종종 책 위에서 휴식을 청합니다. 무심한 듯 우아하게 나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책을 펴냅니다.

Welcome to Reading Cat.

We are a small publisher located in the animal hospital. Cats hanging around the clinic and publisher often rest on the books. Explore yourself through the books with our gentle old cats. Our book will lead you to the deeper inside of you.

T 02-2299-3703
F 02-2282-3152
risubook@hanmail.net

04717 서울성동구 행당로 76 (행당동, 행당 환진타운 단지상가) 110호
110, 76, Haengdang-ro, Seongdong-gu, Seoul, Korea

우리말로 '바람'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부는 '바람'과 바라는 '바람'입니다. '천개의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 품는 천 가지 바람'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건강하기를', '용감하게 자라기를' 같은 소중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천개의바람'이라는 이름에는 숨은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각각각색의 빛깔을 뿜어내는 아이들이지만, 한 가지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개의바람은 아이가 천 명이라면, 꿈도 천 개인 세상을 바랍니다.

천개의바람은 다양한 이야기를 다채로운 그림과 색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아이를 향한 천 개의 바람, 세상을 향한 아이의 천 가지 꿈. 그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천 개의 바람으로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A Thousand Hope' means a thousand wishes that parents have for their children. We try to put messages like 'keep healthy', 'grow up bravely' or so much more in every book.

There is one more hidden meaning in 'A Thousand Hope' and that is we hope children to have dream more freely. Every kid must have their own dream. We wish to have a world that if there are 1000 children, there will be 1,000 different dreams. We want to support every children's various dreams.

A thousand hopes for children, a thousand dreams of children. We make books with a precious heart.

T 02-6953-5243
F 031-622-9413
miso949@naver.com
biog.naver.com/athousandhope

07207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7 (양평동57가, 선유도 투웨이 퍼스트벨리) 1406호
1406, 157, Yangpyeong-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안녕하세요. 만화가 디디강입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웹툰에서 만화 《TANGO》를 연재하고 있으며, 연재한 만화를 책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Hello, I'm DD-Kang, a cartoonist. I'm serializing a comic strip 'TANGO' in Instagram and Naver Webtoon. And also I'm conducting self-publishing books for my own artworks independently.

예술

T 010-3078-2473
pointfour@naver.com

06196 서울 강남구 역삼로 441 (대치동) 시암빌딩 402호
4F, 441 Yeoksam-ro, Gangnam-gu, Seoul, Korea

문학, 철학, 사회과학

청미출판사는 호모 헨드레드 시대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의 철학, 인문에서부터 실질적인 생활의 소소한 에세이까지 나누는 시니어 전문 출판사입니다. 항상 독자와 소통하며 더 좋고 가치있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Cheongmi Publishing Co., Ltd. is a senior publishing company that begins with the problematic awareness of the Homo Hundred era and shares the philosophy of asking questions about the origin of existence such as 'what is a human being', from the humanities to small essays on practical life. We always try to communicate with our readers and make better and more valuable books.

T 010-7407-0377
F 0505-300-0377
cheongmipub@daum.net
blog.naver.com/cheongmipub

04080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8 (서종동, 한강반점거리) 103동 1403호
158,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04080

저작권 담당자 010-7407-0377 / cheongmipub@daum.net

건축가 정현이 2012년 설립한 초타원형은 지난 10년간 당대 문화 현상을 담은 출판물을 선보이며 독립 출판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획과 디자인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류와 비주류, 전통과 현대의 출판물에 반응하며 폭넓은 주제와 형식을 취함으로써 '익숙하지만 낯선 책'이라는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Founded by architect Hyun Chung in 2012, SUPERELLIPSE has created publications on contemporary cultural phenomena for a decade. It emphasizes the uniqueness of novel planning and design that only an independent publishing company can do. While reacting to the high/sub-culture and traditional/modern publications, SUPERELLIPSE takes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forms, building its own identity, familiar and yet unfamiliar books.

T 070-8816-0012
info@superellipse.net
www.instagram.com/superellipse_net

0438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30길25
25, Hangang-daero 30-gil, Yongsan-gu, Seoul, Republic of Korea

'출판사 방'은 여행서를 전문으로 출간하는 1인 출판사로 작은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쉽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다양한 여행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와 동행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방』을 여행으로 채웁니다.

<Bang> took a small step as a one-man publishing house specializing in travel books.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it is difficult to travel easily, and we are trying to find the meaning of various travel and create opportunities to accompany our readers in various ways. Fill your 『room』 with travel.

T 010-4110-0260
F 02-6305-0402
bookandbang@gmail.com
www.instagram.com/bookandbang

07930 서울 양천구 오목로 39-13, 가동 B02호
B02-ho, ga-dong, 39-13, Omok-ro, Yangcheon-gu, Seoul, Republic of Korea

I12
카멜북스
Camelbooks

카멜북스는 빨간 날에 읽고 싶은 책을 만듭니다. 건조한 일상에 활기를 주는 가치에 주목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낸 책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력 분야인 에세이에서 『오케이 라이프』, 『그럴 땐 바로 토끼시죠』 등 신진 작가의 주목받는 도서를 출간해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진 창작자를 발굴하는 데 앞장섰고, 풍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분야를 넘나들며 양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좋아하세요?’ 시리즈를 통해서 각자의 세계를 채우는 것들에 대해 즐겁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카멜북스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인사이트가 되는 이야기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Camelbooks makes books to read on holidays. We mainly publishes essays and tries to find new writers who have their own content.

문학, 예술

T 02-3144-7113
F 02-374-8614
camelbook@naver.com
www.camelfactory.co.kr

04043 서울 마포구 양화로12길26 (서교동, 지웰드빌딩) 3층
3F, 26, Yanghwa-ro12-gil, Mapo-gu, Seoul, Korea

K17
커넥티드 코리아
kenektid korea

문학, 예술, 독립출판

커넥티드는 2016년 뉴욕에서 설립된 회사로 뉴욕갤러리로 뉴욕의 작가들의 전시로 시작해서, 2018년 독립서점으로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2019년 커넥티드 북페어 1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립출판 북페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독립출판 작가들의 제작을 돕기 위한 인쇄 서비스 런칭과 2021년을 지로, 홍대에 2,3호점과 2022년 명동 플래그십 매장까지 시작하면서, 독립출판을 비롯한 출판 플랫폼으로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 작가들의 책 제작과 한국 유통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독립출판물을 커넥티드 뉴욕에도 소개하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Kenektid was established in Newyork in 2016 and started as a New York gallery with exhibitions of New York artists, and built an independent bookstore in Seoul, 2018. With the launch of a printing service to help independent publishing authors to create their own books in 2020, we opened 2nd and 3rd bookstores opened in Euljiro and Hongdae, respectively, and recently the flagship store in Myeondong were opened in April, 2022. The flagship is establishes itself as a publishing platform including independent publishing.

T 070-4257-5477
bookstore@kenektid.kr

04549 서울 중구 인현동1가 15-7층
1f, 24-6, Eulji-ro 20-gil, Jung-gu, Seoul, Korea

J19
케이스터디
CASESTUDY

총류, 예술, 여행

케이스터디는 동시대 문화의 흐름을 전시, 출판,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담아냅니다. 주인공보다는 그 옆 사람을, 주요 사건보다는 그 뒷이야기를 궁금해하고 좋아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다른 관점의 새롭게 보기를 공유하며, 케이스터디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갑니다. 『고양이 옆 집사 옆 사람』, 『의자와 낙서』, 『흔들리는 선』, 『슈퍼마켓』 시리즈 등을 발행하였습니다.

We do exhibition planning, publishing, brand consulting and draw up education programs, figuring out contemporary culture. We aim for a new perspective based on humanistic imagination.

T 02-777-1123
casestudy.kr@gmail.com
www.instagram.com/newformatkr

04526 서울 중구 세종대로16길 27, 401호
#401, 27, Sejong-daero 16-gil,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J19
쿠쿠루쿠쿠
CUCURRUCUCU

예술

cucurrucucu는 ‘구구구’ 우는 비둘기 울음소리를 뜻합니다. 한 마리 새가 되어 느린 호흡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일상에서 포착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합니다.

‘cucurrucucu’ means the sound of a pigeon crowing. We observe the world with slow breathing like a bird, and we ponder how to share stories captured in our daily lives.

T 010-8986-1890
cucurrucucu.presse@gmail.com
www.cucurrucucu.kr

28065 충북 괴산군 향천면 함살림길 24
24, Hansallim-gil, Cheongcheon-myeon, Goseon-gun,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크레용하우스는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고 인생의 스승이 되는 책을 1998년부터 한 권 한 권 정성껏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크레용처럼 친숙하고 재미있고 감동 있는 이야기는 물론 정보가 담긴 교양 과학 책 등 다양한 콘텐츠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빛은책들은 크레용하우스의 성인 브랜드로 인문, 교양, 과학, 환경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빛은책들의 모토는 “가치와 재미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To develop and create a healthy growing environment for youngsters and to raise good and kind imaginative minds for the next generation is our ultimate goal and we are fully pledged and geared toward this dream of future.

Crayon House is fulfilling its catalog through solid collaboration with many of internationally acclaimed leading companies of children's books industry.

Crayon House only makes the good books for children.

BIZNBOOKS is YA novel and Science & Math brand of CRAYON HOUSE.

T 02-3436-1711
F 02-3436-1410
Crayon@crayonhouse.co.kr
www.crayonhouse.co.kr

04962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09-9 (구의동, 음연빌딩) 2층
2F floor, 709-9, Cheonho-daero, Gwangjin-gu, Seoul, Korea

작가의 상상과 표현이 자유롭게 숨 쉬고, 목소리와 가치가 담긴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책,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관계의 시작이 되는 책을 희망합니다.

그림책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림책이 줄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전달하며, 그림과 이야기 안에서 모두가 관계 맺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을 삽니다.

“함께 생각하고 성장합니다. 어린이가 꿈꾸는 세상”—킨더랜드
“예술 속에서 자유를, 자유 속에서 가치를 찾는 우리 그림책”—반달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간”—여섯번째봄
세 브랜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We seek to create books to show the writer's imaginations and keep their voices alive through it. We desire books that can be receiving with everyone and can start the journey of growth and sharing. We think of the fundamentals of picture books, deliver the infinite number of significance a picture book can have, and wish for a world where everyone can come together through pictures and stories.

We hope to share more diverse stories and seek values within art through our brands.

Kinderland, Bandal, and 6th Spring.

T 031-919-2734
F 031-919-2735
kinderland@kinderland.co.kr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512 (문발동) 비동 3층
3floor, 512,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탐프레스’는 대구의 독립 서점 ‘서재를 탐하다’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서점에서 활동하는 로컬 창작과 커뮤니티를 연계한 기획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예술, 글쓰기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글을 씁니다. 개인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목소리로 연결하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Tampress〉 is a publishing company operated by Daegu independent bookstore. We are publishing planned publications that link the community with local creations that are active in bookstores. Research and write based on women, art, and writing. We plan to continue working to connect with social voices rather than staying in individual records.

T 010-5005-0912
 seotambooks@naver.com
 blog.naver.com/kuk100

14405 대구서구 고성로 132-2, 1층
 1F, 132-1, Goseong-ro, 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테오리아는 2015년에 첫 책을 출간한 작은 출판사로, 문학·예술·인문 분야에 집중합니다. 이론과 성찰이라는 의미의 출판사명에 걸맞게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알아보는’ 책을 내고자 합니다. 그간 예술과 대중문화 작품 속 문장 한 줄의 의미를 되새기는 에세이 시리즈, 작가들의 첫 예술 경험을 이야기하는 앤솔로지 에세이 등 예술 관련 책을 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데 토대가 된 역사, 종교 관련 책도 출간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신진·중견, 소설가·시인의 작가지원사업 선정작을 엮은 시리즈도 펴냈습니다. 이 중 배수아 작가님의 『밀레나, 밀레나, 황홀한』을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리커버 증보판으로 다시 선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s a publisher with a name meaning ‘theory and contemplation’, Theoria has made books to help readers ‘look back on themselves and look out into the world at large.’

Theoria has published essays that reflect the meaning of one sentence in art and talk about the artists’ first art experience. Theoria has also published books which are the basis for humanistic reflection on our society.

In addition, Theoria has published works by up-and-coming or leading Korean novelists and poets. Among them, Bae Suah’s 《Milena, Milena, Ecstatic》 will be re-introduced as a re-covered edition at the SIBF 2022.

T 02-3144-7827
 F 0303-3444-7827
 theoriaz013@naver.com

04064 서울 마포구 서강로 95
 95, Seogang-ro, Mapo-gu, Seoul, Korea

말과 글로 살림살이하는 출판사 텍스트프레스는 대중문화에 미학적 관심을 두고 글을 쓰며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텍스트프레스는 '다원주의 생활세계 출판사'를 지향하며 1년에 2-3권 정도의 책을 지속해서 출간합니다.

Textpress, a publishing company makes books with aesthetic interest in popular culture. Textpress aims to become a "plural life-world publisher" and continues to publish two to three books a year.

T 010-3994-1840
info@textpress.kr
www.textpress.kr

47732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107번길54
54, Chungnyeol-daeiro 107beon-gil, Dongnae-gu, Busan, Republic of Korea

[나의 하루를 끌어올리는 한 조각 위로]

티라미수 더북은 어제를 위로하고 오늘을 살아갈 활력을 불어넣고 내일의 희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티라미수는 끌어 일으키다(tirare), 나(mi), 위(su)가 합쳐진 이탈리아어로, 티라미수 더북은 독자들의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A piece of comfort that lifts my day]

Tiramisu The Book aims to console yesterday, energize today and provide hope for tomorrow. Tiramisu is an Italian word that combines "tirare", "mi" and "su" and sometimes makes sweet, sometimes bitter humanities and essay books. Tiramisu The Book hopes every day will be better for its readers.

T 02-2653-5131
tiramisu@epublic.co.kr

07995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11 (목동, 범문빌딩) 3층 출판영업팀
3rd floor publication business department 211, Mokdongseo-ro, Yangcheon-gu, Seoul, Korea

독립 출판사인 파시클은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일상이 문학과 예술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쫓아가려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서 출발하여,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문학, 예술, 문화 등, 페미니즘과 교차하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한 권 더할 때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느릿하지만 꾸준히 단단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선집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모두 예쁜데 나만 썩거루』, 『나의 꽃은 가깝고 낯설다』이 있고, 단행본으로 『회사가 사라졌다 - 폐업/해고에 맞선 여성 노동』, 『양산한 저 나무에도 언젠가는 잎피 피갯지』가 있습니다.

The Fascicles is an independent publisher seeking for the knots tied with art and literature by everyday lives of all beings. Starting from the selections of Emily Dickinson's poems, The Fascicles is interested in those topics of labor, human rights, climate crisis, culture, art and literature intersected with feminist or gender issues. Every time we publish, we take another step forward changing ourselves. Our walk looks slow but is firm and steady.

T 010-5440-4627
beonfascicles@naver.com
www.instagram.com/fascicles_seoul

1033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 809동 701호
809-701, 398, Tanjung-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이하 FDSC)은 그래픽 디자인계의 성차별적 관행에 맞서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임입니다. FDSC 커뮤니티에서는 1년 차부터 40년 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230명의 디자이너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FDSC는 각 개인이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FDSC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찾아 스스로 움직이고 공부합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 속에서 동료들 발견하고 응원하고 지지를 나눕니다.

Feminist Designer Social Club(FDSC) proposes alternative values against sexism and attempts to bring changes in the field of graphic design. A community of two hundred and thirty designers from varying career stages in diverse scenes, FDSC aspires to foster a dynamic group where individuals are inspired to pursue their unique qualities as designers. Members of FDSC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by researching and experimenting with innovative practices. Based on mutual respect, FDSC aims to safe and robust community where the members find support from one another.

info@fdsc.kr
fdsc.kr

0693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 B2 스타트업존 b05호
b05, startup zone, B2, 10, Noryangjin-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가능성. 그중에서도 엄마의 잠재력을 주목하는 포포포 매거진에 싱글 여성과 남성, 지구 반대편에 사는 독자의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저마다의 역사를 가진 한 개인의 서사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흩어져있던 점들이 연결되는 시작점에 포포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포포포 매거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독자에서 작가로의 첫 걸음을 응원하는 Be Our Guest 지면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독자 기고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포포포가 되겠습니다.

Possibility. POPOPO Magazine focuses on the potential of all the mothers amongst us. I was amazed every time I got feedback from single women, men, and readers across the globe. It's a platform to share an individual's narrative with their own history. Let's hope the scattered dots will be connected through this platform. Waiting for your story, through the "Be Our Guest" page, where the reader becomes a writer. Let's hope a new prelude to our lives begin. Details regarding the reader's contribution will be posted on Instagram later. We aim to always come back with bigger and better content.

T 070-4082-0401
popopomagazine@gmail.com
www.popopomagazine.com

37725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 33, 경북 콘텐츠기획지원센터 706호
7F room 706, 33, Daesin-ro,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피닉스앤컴퍼니는 에세이, 소설 그리고 다른 문학 작품들을 출판합니다. 피닉스앤컴퍼니의 미션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Phoenix & Company is a global publishing company that publishes essays, novels and other literary pieces. Its mission is to inspire, create and bring upon the good in the world.

T 070-7583-0182
yos881@mail.harvard.edu

03493 서울 은평구 중산로5길 35-10 (중산동) 3동 805호
3 dong 805, 35-10, Jeungsan-ro 5-gil, Eunpyeong-gu, Seoul, Korea

픽션들은 2020년에 싱어송라이터 이아립이 만든 출판사입니다. '픽션과 픽션에 가까운 것들'을 추구하는 픽션들은 문학의 다양한 형태를 시도하는 책과 포스터를 기획하여 만듭니다. 최시형의 필름북 『극장을 나오며』를 시작으로 이치은 작가의 SF 장편소설 『로봇의 결함』과 음악가 전진희의 피아노스코어를 담은 『Jeon Jin Hee PIANO』를 출간했으며 또한 음악가들의 에세이와 사진을 담은 문학 포스터 <팔불출>도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신 안에 헤아릴 수 없는, 1인들'이라는 1인 앤솔로지 시리즈를 기획하여 출간 예정입니다.

Fictiondle is a publishing company created by singer-songwriter Earip in 2020. Fictiondle, which pursues "things close to fiction," plans and creates books and posters that attempt various forms of literature. Starting with Choi Si-hyung's film book "Leaving the Theater," Lee Chi-eun's SF novel "Faults of Robots," and "Jean Jin Hee PIANO" which contains musician Jeon Jin-hee's Piano Score. We also plan and produce a literary poster <Palbulchul> with essays and photos of musician. Currently, we are planning to publish a one-person anthology series called "Countless in you, One Persons"

T 070-4647-2432
fictiondle@gmail.com
www.instagram.com/fictiondle

03008 서울 종로구 평창1길5, 401호
401ho, 5 Pyeongchang 1-gil,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학산문화사는 1995년 창사이래 독자분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감동을 드리고자 하는 "출판장인"의 마음가짐으로 책과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학산문화사는 끊임없는 창작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만화출판부터 캐릭터 사업, 디지털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만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고 있으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어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People make books, books make people.

Haksan Culture Company has been making books and stories with the mindset of a "Publisher" who aims to deliver joy, fun, and impresssion to readers since its foundation in 1995.

Haksan Culture co.Ltd. is expanding the possibilities of manga in various fields, from comic book publishing to character business to digital business through creating new content and having new challenges. As a content creator facing the transformative business environment, we continually try out best and work hard to be flexible and competitive.

T 02-828-8982
F 02-828-9899
hoon8029@haksanpub.co.kr
www.haksanpub.co.kr

07032 서울 동작구 상도로 282 (상도1동, 학산빌딩) 5층
5F, 282,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서영주(Seo young Joo) / 02-828-8953 / yjseo@hansanpub.co.kr

F25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문학, 사회과학, 예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상호 우호적인 국제 민간 네트워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주관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11개국어로 계간지 《Koreana》를 발간하고, 한국관련 기획출판사업과 출판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Foundation(KF) was established in 1991 to promote Korea to the world and perform public diplomacy in order to deepen mutually friendly international civil networks. Since its founding, the KF has been publishing quarterly arts & culture magazine <Koreana> in 11 languages and supporting various publication programs to provid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Korea to the world.

T 064-804-1000
F 064-804-1273
publication@kf.or.kr
www.kf.or.kr

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법환동, 서귀포시청2청사)
Korea Foundation, 55, Sinjung-ro, Seogwipo-si, Jeju-do, Korea

저작권 담당자 유연준(Yeonjoon You) / 064-804-1112 / yjyou@kf.or.kr

K4

한국도서관협회
Korean Library Association

출판물 보급, 정보통신업, 연구용역

한국도서관협회는 1945년 창립 이래, 도서관 진흥과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도서관 및 도서관인 총 연합체로 「도서관법」상의 공익법인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문화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도서관 관련 각종 도서 등의 간행,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교육과 활성화 관련 사업, 도서관 확충, 도서관 권리, 도서관인 윤리 향상 등에 관한 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45,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has been the only library and library-general body in Korea to promote mutual exchange of materials, research on business cooperation and operational management issues, and to enhance the quality and common interests of its employees.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is the only library and library consortium in Korea and is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organization under the 「Library Act」.

T 02-535-4480
F 02-535-5616
w3master@kla.kr
www.kla.kr

06679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 Bampo-daero, Seoch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김하정(Kim Ha jeong) / 010-2249-4716 / khj0124@kla.kr

F20
한국잡지협회
Korea Magazine Association

잡지, 매거진 콘텐츠

한국잡지협회는 민족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건전한 잡지언론창달 및 잡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1962년 10월 26일 창립되었으며, 오는 2022년 11월에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00여개의 잡지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잡지협회는 잡지의 질적 향상과 잡지인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오면서 명실공히 언론단체로 성장해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잡지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orea Magazine Association (KMA) was established on October 26, 1962, under the aim of passing down Korea's national culture, achieving successful magazine journalism,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magazine community.

KMA has strived to improve the quality of magazine content while also promo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agazine publishers and staff.

It is broadly recognized as a professional media association with over 500 member magazine companies and remains devoted to the promotion of the magazine industry through close communication with government ministrie.

T 02-360-0000
 F 02-360-0049
 kmaamk@korea.com
 www.magazine.or.kr

0733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여의도동) 잡지회관 4층
 4F, 11, Yeouidaebang-ro 67-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H5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The Korean Publishing Foundation

기타금융업

출판문화진흥재단은 우리나라 출판문화 발전과 출판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196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 재단은 출판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출판인 여러분을 위한 출판자금 융자 사업 및 출판관련 중사자분들의 복지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지원사업으로 출판문화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각종 도서전시회와 출판관련 행사, 출판유통 현대화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단 직접사업으로 우수한 청소년 교양도서를 매년 선정,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 미래 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올해의 청소년 도서 선정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Publishing Foundation(TKPF) (since 1969) is established to develop Korean publishing culture and promote the publishing industry.

TKPF offers publishing loan to publishers who want to solve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other financial support projects are research projects for publishing culture development, book fair, publishing modernization project and several other publishing-related events.

Moreover TKPF purchases and distributes books selected as ‘The Youth Book of the Year’ to diverse youth organizations for free twice a year.

T 02-732-1434
 F 02-722-5406
 tkpfs@ddumnet
 tkpf.or.kr

03150 서울 중문구 삼봉로 95 (건지동, 중문1기 내성 스카이 레스) 101동 201호
 101dong 201ho, 95, Sambong-ro, Jongno-gu, Seoul, Korea

한국출판협동조합은 1958년 뜻있는 출판인들이 모여 낙후된 출판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50여 년간 출판사와 함께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점과 일반 독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합은 최상의 서비스를 통하여 서점과 출판사, 그리고 독자 등 출판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한 출판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e Korea Publisher Cooperative was created in 1958 by meaningful publishers to improve the old publishing reality.

Our cooperative has been working with publishers for the past 50 years to develop the publishing industry. We have also faithfully played a role as a medium for connecting bookstores and ordinary readers.

In the future, our cooperative will do its best to create a publishing environment that satisfies book-related people such as bookstores, publishers, and readers through the best services.

T 02-716-5616
F 02-716-6769
gontaege@koreabook.onnet21.com
www.koreabook.co.kr

04091 서울마포구 토정로 222 (신수동, 한국출판권원초센터) 5층
5, 222,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한빛은 독자의 삶의 가치를 넓혀갈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독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빛미디어: IT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 IT 에세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OA, 그래픽 등 IT 활용서 등을 출간합니다.
- 한빛아카데미: 이공계 분야 종합 교재 출판사입니다.
- 한빛비즈: 경제경영/자기계발/인문교양 전문 출판사입니다.
- 한빛라이프: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책을 만듭니다.(취미, 실용 분야)
- 한빛에듀: 엄마의 마음을 담아 내 아이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책을 만듭니다.(어린이 학습 분야)

Hanbit took its first steps into the IT publishing business in March 1993, and has now become a reliable partner for leading IT professionals.

Hanbit's titles cover such topics as IT professionals' in-depth work experiences and field know-how, the advancement of computer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With such titles as its foundation, Hanbit is now expanding its publishing scope by introducing university textbooks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as well as computer-related publications (office automation programs, graphic design, photography) for non-professionals.

T 02-325-0384
F 02-325-9697
marketing@hanbit.co.kr
www.hanbit.co.kr

03785 서울서대문구 연희로2길 62
62, Yeonhui-ro 2-gil, Seodaemun-gu, Seoul, Korea

한솔수북은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 그룹 한솔교육의 단행본 출판사입니다. 빼어날 수(秀), 영어로 Book이 만나 만들어진 이름으로 수북수북 좋은 책을 많이 쌓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동화책·지식책을 출간하는 브랜드로 '한솔수북'이 있고, 청소년 교양 및 문학 브랜드로 '책담', 감성·공감 에세이 브랜드로 '딜레르', 어린이 학습 도서 브랜드로 '한솔스쿨'이 있습니다.

Hansol Soobook Publishing Co., Ltd. is subsidiary of Hansol Education Corp., which is a representative educational publishing group in Korea.

[Hansol Soobook] is a brand that publishes picture books, fairy tales, and knowledge information books for young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aekdam] is a brand for youth liberal arts and humanities and literature. [Delere] is a brand that publishes collection of essays. [Hansol School] is a brand for children's learning books.

T 02-2001-5828
F 02-2060-0108
isoobook@eduhansol.co.kr
blog.naver.com/hsoobook

03996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96 (서교동, 영훈빌딩) 5층
5F, 96, World Cup-ro, Map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한해숙(Haesuk Han) / isoobook@eduhansol.co.kr

도서출판 항해는 '읽어서 재미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을 모토로 2017년 1월에 설립된 출판사입니다. 주요 출판 분야는 사람, 세상, 예술을 다룬 논픽션 전반으로, 세상에 꼭 알려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을 냅니다.

출간 도서로는, 피터 잭슨 감독의 비틀즈 전기영화의 공식 단행본 『비틀즈: 갯백』(비틀즈 저, 2021), 배우 키키 키린의 어록을 담은 『키키 키린: 그녀가 남긴 120가지 말』(키키 키린 저, 2019), 물질 문화의 시대,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교양을 탐색한 『앞으로의 교양』(스가스케 마사노부 저, 2019), 물질 소비를 넘어서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세계적 현상을 분석한 『물욕 없는 세계』(스가스케 마사노부 저, 2017) 등이 있습니다.

'Hanghae' is a publishing company established in January 2017 with the motto of "Books that are fun to read and helpful to life." The main publishing area is non-fiction, which deals with people, the society, and art, and publishes books that are worth making known to the world.

The books include Peter Jackson's official Beatles biopic "The Beatles: Get Back" (2021), a quote by actor Kiki Kirin "Kiki Kirin" (2019), which explores new cultures to surviv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Liberal Arts Now" (2019).

T 070-4233-6884
F 0505-333-6884
hhbooks@naver.com
blog.naver.com/hhbooks

04079 서울 마포구 토정로 167 (창전동, 헤모로아파크) 103동 801호
103, 801, 167, Tojeong-ro, Mapo-gu, Seoul, Korea

저작권 담당자 010-9922-6884 / hhbooks@naver.com

카카카는 예술활동으로 남해에서의 삶을 실험하고 문화적 경험을 제안하는 아트 커뮤니티입니다. 해변의 카카카는 '지역을 읽는 다양한 담론 제시'를 목적으로 카카카에서 설립한 지역 독립출판사입니다. 예술과 디자인, 지역과 생활에 관련한 책을 기획하고 출판합니다.

Cacaca is an art community that offers cultural experiences and experiments with life in Namhae. 'Cacaca on the shore' is a publishing company established by Cacaca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various discourses to understand the regions of Korea outside of Seoul. Cacaca on the shore publishes books about art and design, the local and life.

T 010-6368-2710
cacacaontheshore@gmail.com
www.cacaca.kr

52436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123, 1층
123, Mujigae-ro, Nam-myeon, Namhae-gun,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창작 생활을 위해 '매일'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해해북스>입니다.

해해북스의 '해해'는 "해보자! 해보자!"라는 뜻으로 응원과 권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해보자! 해보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Hello-! This is <HaehaeBooks>.

I love sustainable creative living. I record and collect every day. "HAEHAE" means "Let's do it". This means cheering and encouragement.

We do independent publishing, electronic publishing, book design, and travelgene production.

T 010-5113-4728
haehaebooks@gmail.com
www.instagram.com/haehaebooks

04051 서울 마포구 신촌로 2길 10,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315호
315 PL ATF ORM-P 19, Sinchon-ro 2-gil,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저작권 담당자 010-9922-6884 / hhbooks@naver.com

처음부터 이름난 작가는 없습니다. 향은 새롭게 빛날 작가를 발굴해, 이상하고 맛있는 책을 만듭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 현재까지 그림책 26권, 그림 에세이 2권을 펴냈습니다.

New authors,
Sweet books,
Hyang publishing house

T 070-7797-7721
F 031-824-8524
fallinnosto@hanmail.net
blog.naver.com/fallinnosto

04019 서울마포구 혜우정로1길 48 (합정동 두영이주민아파트) 702호
702ho, 48, Huiujeong-ro 1-gil, Mapo-gu, Seoul, Korea

[29년,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다]

효형의 책은 경계를 넘나듭니다. 인문과 예술을 통해 시대정신에 맞는 코드로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건축도 인문학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 건축은 토목과 기술로만 분류되었습니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서현)를 시작으로 효형출판은 건축을 인문의 눈으로 보는 책을 만들어왔습니다.

동물로 인간을 바라본 책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최재천)는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생물학 또한 인문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해당 도서는 출간 20주년을 기념해 새 옷으로 갈아입고 독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앞으로도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예술이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9 Years, Expanding the Horizon of Humanities>

Hyo-hyung's book crosses boundaries. It approaches readers with codes that fit the spirit of the times. Hyo-hyung Publishing has made a book that sees architecture with the eyes of humanities. And a book that interprets humans through animals, “Everything that has life is beautiful” was included in Korean textbooks. It proved that biology can be viewed from a humanistic perspective. This book was re-covered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T 031-955-7600
F 031-955-7610
editor@hyohyung.co.kr
hyohyung.co.kr

10881 경기 파주시 회동길 125-11 (문발동, 효형출판) 3층
editorial.office, 125-11,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Korea

후즈갓마이테일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들과 함께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꼬리는 누가 가져갔지?”라는 뜻의 출판사 이름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상상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Who's Got My Tail publishes books for children with cultural diversity in mind, working not only with Korean authors but also with authors from all over the world. As suggested by our playful name, we aim to make books that talk with children and open up their imagination.

아동

T 070-8958-6498
F 02-6280-6498
whosgotmytail@gmail.com
www.whosgotmytail.com

03661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20 (연희동, 신해골드하우스) 1층
1F, 20, Gaiwa-ro, Seodaemun-gu, Seoul, Korea

해외
참가사

LITERARY AGENCY

T +34 91 3692061
contacta@acerliteraria.com
www.acerliteraria.com

저작권 담당자 ROBERTO DOMÍNGUEZ MORO / +34 91 3692061 / rdominguez@acerliteraria.com

T +880-1979-219024
info@agameeprakashani-bd.com
http://agameeprakashani-bd.com

Established in 1986, Agamee Prakashani is one of the leading publication houses in Bangladesh. It publishes both fiction and non-fiction genres by legendary authors and the most prolific writers of our time. It has over 2,000 titles in Bengali and English languages to its credit while books on Bangladesh liberation war, history and politics, autobiography, personal memoir and literary fictions remain as some of its major undertakings. Agamee Prakashani is committed to its focused responsibility as a publisher to defending freedom of speech and human rights, and to celebrating the gifts of the human imagination wherever possible.

36 Banglabazar, Dhaka 1100, Bangladesh

저작권 담당자 Mitia Osman / +880-1979-219024 / agameebooksbd@gmail.com

성전 코란에서는 이슬람이 오랜 분쟁 끝에 결국 어둠을 타파시켜 버리는 광명의 메시지라고 주장한다. (성전 코란에서, 후반기에 이르러 모든 다른 종교 및 이념 등을 이슬람이 초월하게 될 것이며 전체 인류의 신앙과 이념에 대한 유일한 종교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실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성 예언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슬람의 최종적인 승리는 마야디 그리고 메시아로 명명되는 성예언자 무함마드의 종에 의하여 논리, 추론 그리고 설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아흐마디아 무슬림의 신앙에 따르면,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이 예언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도의 카디안 사람인 하즈랑 미르자 구울람 아하메드가 일으키워졌다. 1889년, 이 분은 어떤 운동을 기초하셨으며 그것을 이슬람의 아흐마디아 운동이라고 불렀다. 그 기본원리로부터 이 운동은 이슬람의 복음을 평화로운 수단, 설득론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료 인간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이슬람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때까지, 이 운동은 전 세계의 백여개의 국가에서 이슬람을 새로이 구하는 자들을 찾았으며 이러한 방침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5대 칼리프이신 성하 하드랏 미르자 마스루르 아흐마드(Hadrat Mirza Masroor Ahmad)는 아흐마디아 무슬림 공동체(Ahmadiyya Muslim Community)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자 개혁자이신 하드랏 미르자 굴람 아흐마드(Hadrat Mirza Ghulam Ahmad)의 증손자이십니다.

The advancement of the Muslim faith worldwide as expounded by Hazrat Mirza Ghulam Ahmad of Qadian (on him be peace), the Promised Messiah and the Founder of the Ahmadiyya Movement and interpreted by his successor known as Khalifatul Masih. The present Khalifatul Masih is Hazrat Mirza Masroor Ahmad Khalifatul Masih V (may Allah be his Helper).

Today, it continues to be an advocate for universal human rights and protections for religious and other minorities. It champions the empowerment and education of women. Its members are among the most law-abiding, educated, and engaged Muslims in the world.

A rights and international publishing agency specialised in children's books (baby books, picture books, fiction, YA, graphic novels). I represent Korean titles hand-picked from across many publishers and titles from China, Taiwan and Japan into the West, and titles from Italy and France worldwide.

“중국도서수출입(그룹)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과 같은 시기에 설립된 대형 국유문화기업이고 2002년에는 중국출판그룹 회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ISO9001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을 통과했고 2015년 중국 세관 AEO 선진 인증 기업이 되었습니다. 좋은 브랜드 신뢰도로 중국출판사 정부상, 선진 기업상 등 많은 중요한 상을 수상했으며 세관에서 신뢰도 높은 기업, 전국신문출판 선진그룹, 국가문화수출 중점기업으로 여러 차례 선정됐으며, 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 및 CNPeReading 해외플랫폼의 중국문화수출 중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중국도서그룹은 항상 국제 선진 과학기술 문화 성과를 도입하여 사회 및 경제 건설에 기여를 하고 있고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출판물 전용 보세 창고 및 수출 감독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향 영상 제품 수입과 외국 신문 잡지 소매의 2개 독점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출판물 수입, 출판물 수출, 디지털 자원 서비스, 국제 전시 서비스, 주문형 인쇄, 국제 출판, 문화 무역, 금융 부동산 등과 관련된 다원화 업무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자산 총액은 48억 위안에 달하고 30여개 국내외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70여만 종의 출판물 2100만 권/부를 전세계 17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수출하여 수만 개의 도서관, 대학, 과학연구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실력있는 출판물 수출입 기업이며 디지털 자원 제공업체 및 국제 도서 박람회 서비스 기관이 되었습니다.

China National Publications Import and Export (Group) Co., Ltd. (CNPIEC) is a large state-owned cultural enterprise founded in 1949. It became a member of China Publishing Group Corporation in 2002, passed the ISO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 2009, and was recognized by China'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s a senior authorized enterprise (AEO) in 2015. The CNPIEC brand's excellent reputation has brought the corporation many important awards, including the Chinese Government Award for Publishing (Advanced Unit Award), recognition by China's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as a Trustworthy Enterprise, membership of the National Advanced Press and Publications Group of companies, and recognition as a National Key Cultural Export Enterprise. Beijing International Book Fair and the CNPeReading website have been acknowledged as key national cultural export projects.

T 82 2 3178500
 livredemat@kr.ambafrance-culture.org
<https://krambafrance-culture.org/>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는 프랑스와 한국 양국의 예술, 문화, 학술교류 및 프랑스어 활용을 홍보하고자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문화 축제 및 기관들과 협력하며, 프랑스 작가 및 석학 초청을 지원하고, 프랑스 서적을 번역 출간하고자 하는 국내 출판사들을 위한 출판번역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Cultural Service of the Embassy of France in Korea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cooperation actions between France and Korea in order to promote artistic, cultural, and academic exchanges as well as the practice of the French language. The Cultural service of the Embassy of France in Korea partners with major Korean cultural festivals and artistic institutions, and supports the invitation of French writers and scholars. It also operates a publication and translation support program for Korean publishers who want to publish French books.

13th Fl., Woori BD, 42, Chilpaee-ro, Jung-gu, Seoul, Korea

T +82-2-3783-6000
seoul-td@international.gc.ca
http://www.korea.gc.ca

주한캐나다대사관 상무과에서는 캐나다기업이 한국시장에서, 한국파트너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시장에 대한 조언, 실질적인 정보, 효과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The Canadian Trade Commissioner Service (TCS) provides its clients with practical advice on foreign markets and on-the-ground intelligence to help them make better, more timely and cost-effective decisions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s abroad.export projects.

21, J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T 00331 44 41 13 13
info@bief.org
www.bief.org
www.booksfromfrance.fr

프랑스국제출판사무소(BIEF)는 약 280여개 프랑스 출판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로 소속 출판사들의 대규모 도서 전시회 참가, 국내외 도서 출판 전문가들의 교류 증대와 해외 출판 시장 조사 연구서 제작 및 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he BIEF (Bureau International de l'Édition Française) supports almost 280 French publishing houses in their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uring the presence of its members at all the major book fairs, BIEF also organizes many professional meetings between players in the book industry in France and abroad, and publishes international market studies. BIEF's directory and various bilingual publications invite professionals all over the world to discover the rich variety of its members' production.

115 Boulevard Saint-Germain, 75006 Paris, France

저작권 담당자 Laurence Risson / 00331 44 41 13 28 / l.risson@bief.org

B10 독일 Germany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Frankfurter Buchmesse GmbH

T +49 (0) 69 21020
servicecenter@buchmesse.de
https://www.buchmesse.de/en

매년, 프랑크푸르트는 도서전을 맞아 생각을 나누는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합니다. 소설과 아동 도서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 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출판 전문가가 기술 분야 파트너와 영화나 게임 같은 관련 업계 전문가를 만나, 협업에 관해 협의하고 신규 사업 모델에서 영감을 찾기 위해 바로 이곳을 찾습니다. 동시에, 도서전은 대형 문화 행사로, 매년 5일 동안 프랑크푸르트를 세계 언론의 중심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Once a year, the Frankfurt Book Fair becomes the Global City of Idea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trading place for content, from novels and children's books to academic databases. Publishing professionals from around the world meet here with partners from the technology sector and from related creative industries, such as film and games; it is here that new cooperation agreements and business models find their first inspiration. At the same time, the Book Fair is also a huge cultural event which, for five days every year, turns Frankfurt on the Main into the centre of the international media world.

Braubachstr. 16, 60311 Frankfurt, Germany

저작권 담당자 Katherina Rapp / +49 69 2102 169 / rapp@buchmesse.de

B16 이집트 Egypt
Sefsafa Publishing & culture

T +20110787870
 sefsafap@gmail.com
<https://sefsafa.almatajara.store/ar>

Established 2011, since then Sefsafa has published more than 250 titles in Arabic and organized many activities and proved to be one of the most active small cultural entities in Egypt.

Sefsafa Publishing translated more than 100 titles (fiction & non-fiction) from 20 languages including: Spanish, Chinese, French, English and German.

We like to describe our-self as progressive publishers, supporting the freedom of publishing and ideas of Enlightenment.

In literature we have published Patrick Modiano (Nobel 2014), Peter Handke (Nobel 2019), and Elias Canetti (Nobel 1981), a novel by Douglas Stuart (Booker Prize Winner 2020), and this year we will publish more titles from Handke.

49 Elmakhzan st Omrania Giza Egypt

저작권 담당자 Mohamed EL Baaly / +20110787870 / elbaaly@gmail.com

T +380976960703
ivan.fedechko@starlev.com.ua
<https://starlev.com.ua/about-us>

The Old Lion Publishing House is a Ukrainian publishing house that creates books for the entire family. Every reader, from the youngest to the oldest, will find something among our books to their liking and satisfaction: picture books, fairy tales, poems for children, stories for school-aged children, a series of books for teens, nonfiction for a variety of ages, fine poetry, interesting novels, atlases and albums of incredible beauty, and even anti-stress coloring books. We strive to make our books inspire readers.

Staroznesenska Str. 24-26, Lviv, 79000, Ukraine

저작권 담당자 Ivan Fedechko / +380976960703 / ivan.fedechko@starlev.com.ua

B12 독일 Germany
출판사 키펜호이어 & 위치
Verlag Kiepenheuer & Witsch

켈른에 기반을 둔 현대 픽션 및 논픽션 출판사입니다.

Publishing house based in Cologne for contemporary fiction
and non-fiction

Bahnhofsvorplatz 1, 50667 Cologne, Germany

T 0049 221 / 376 85 0
mlang@kiwi-verlag.de
www.kiwi-verlag.de

저작권 담당자 Mona Lang / 0049 221 / 376 85 14 / mlang@kiwi-verlag.de

B1 콜롬비아 Colombia
콜롬비아 문화부
Ministry of Culture of Colombia

T +57 (601) 3424100
servicioalciudadano@mincultura.gov.co
<https://www.mincultura.gov.co/>

The Ministry of Culture of Colombia is the government entity in charge of:

Formulate, coordinate and implement the cultural policy of the Colombian State to stimulat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istic processes, projects and activities that recognize diversity and promote the appre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nation's cultural heritage.

Ministerio de Cultura, Calle 9 No. 8-31, Bogotá D.C., Colombia

저작권 담당자 Maria Orlanda Aristizabal, Literature Group Coordinator / +57 3133906108 / moaristizabal@mincultura.gov.co

인덱스

B13	A.C.E.R. LITERARY AGENCY
B14	Agamee Prakashani
B1	Centro Regional para el Fomento del Libro en America Latina y el Caribe - CERLALC
B11	Chiara Tognetti Rights Agency
B16	Sefsafa Publishing & culture
B15	The Old Lion Publishing House
G20	가위바위보 출판사
J19	감 매거진
G26	개성 문화원
J19	고스트북스
H23	고요한소리
H7	고즈닉이엔티
G31	공예가
I3	공출판사
G11	과학콘텐츠그룹 갈다
J19	(도서독립출판)광전사
H13	국립과천과학관
K1	국립생태원
J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E25	국립중앙도서관
I19	국일출판사
L8	굿인터내셔널
I2	글로벌연
H27	금림
G9	김영사
J19	까만개

J14	꿈공장플러스
K13	꿈꾸는 별 책방
H2	꿈꾸는고리연
J4	나는별
J19	나선프레스
K6	내셔널지오그래픽 시사티앤이
J2	노랑상상
K15	늘보의 섬
G1	다산북스
J19	다시서점
H21	단추 출판사
J19	닷프레스
D19	대원씨아이주식회사
I13	대한출판문화협회
G6	더돌스 호텔
I17	더숲
L9	도서출판 길벗
J9	도서출판 노란돼지
J1	도서출판 불벌
J7	도서출판 북극곰
H6	도서출판 유유
I20	도서출판 작가
K3	도서출판도반
G24	도서출판이곳
J19	도어스프레스
I15	동그람이
F5	동아시아
H30	디앤에이디자인
G7	디자인이음
G12	뜨인돌
H26	레드엔터테인먼트
J19	마르시안스토리

F14	마음산책
K7	마음이음 출판사
L15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G25	목수책방
J13	문답 도서리
J19	문장과정면들
E1	문학동네
J19	미디어버스
C9	민음사 출판그룹
K12	바캉스 흰토끼 프레스
J15	박이정출판사
J19	발코니
I9	밝은미래
H22	밤북
J19	별빛들
J19	별책부록
J6	봄개울
I1	봄봄출판사
J19	봄알람
J12	북스토리
I5	북키스
H4	북틀 부커스
G30	북피아 행운의손
G16	불광미디어
G3	브레드
I6	비룡소
G13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E9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
F1	사단법인 한국대학출판협회
H1	사단법인 한국학술출판협회
C1	사회평론
J19	산란

G5	산지니
J16	상상력놀이터
G27	새벽감성
J19	새벽고양이
F15	생각의힘
K11	서울책보고
F21	세계직지문화협회
H24	속뜻사전교육출판사
H29	솔리드 퍼블리싱
J19	숨프레스
G22	썬더코믹스
K5	썸북스
J19	아드헤
L6	아이스크림 에듀
C20	아이윙티브이
F19	아침달
H20	아트앤아트피플
J19	아홉프레스
B20	아흐마디아 미술림 협회
I14	안그래픽스
D9	안전가옥
G32	야옹서가
I16	에고라이팅
J19	에디시옹 장물랭
G29	에이삼십이
J19	에프에프엘
J19	옛눈북스
K8	여유당출판사
D25	오디언소리
I4	와이겔리 도마뱀출판사
J19	우드파크 픽처북스
I25	우리나비

H12 우리학교
M29 우아한형제들
K16 운주사
J19 움직씨 출판사
H11 위크룸 프레스
I23 월간한옥
J19 웹그레이앳블루
I26 윤에디션
D1 은행나무출판사
G19 이상복스
J19 이안복스
I24 이야기꽃
F17 아음
J19 임시제본소
J5 주 오렌지커뮤니케이션즈
J19 주머니시
K9 주식회사 디엠피복스
C19 주식회사 소미미디어
C23 주식회사 아작
J11 주식회사 열림씨앤피
J19 주식회사 책
I11 주식회사휴머니스트출판그룹
B19 주한캐나다대사관
B9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B23 중국도서수출입(그룹)유한공사
H19 지구불시착
H28 지콘디자인
J19 쪽프레스
K10 찰리북
J17 참돌
G4 책읽는고양이
H9 천개의바람

G23 청마표
H32 청미출판사
J19 초타원형
J19 출판사방
B12 출판사키펜호이어 & 위치
I12 카멜복스
K17 커넥티드 코리아
J19 케이스터디
J19 쿠쿠쿠쿠쿠
L10 크레용하우스
L5 킨더랜드
J19 탐프레스
H31 테오리아
J19 텍스트프레스
F13 티라미수 더북
J19 파시클 출판사
J19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J19 포포포
B9 프랑스국제출판사무소(BIEF)
B10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H25 피닉스앤컴퍼니
J19 픽션들
D15 학산문화사
F25 한국국제교류재단
K4 한국도서관협회
F20 한국잡지협회
H5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F9 한국출판협동조합
E19 한빛미디어(주)
I7 한솔수북
G21 향해
J19 해변의 카카카

J19 해해복스
I22 향출판사
G28 효형출판
I21 후즈갓마이테일

J19	a cat at dawn
H9	A Thousand Hopes
B13	A.C.E.R. LITERARY AGENCY
G29	A32
F19	ACHIMDAL
J19	ADJE
B14	Agamee Prakashani
J19	Ah-hope press
B20	AHMADIYYA MUSLIM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I14	Ahn Graphics
I15	Animal and Human Story
H20	artnartpeople
C23	ARZAK
J3	Asia Culture Center
J19	Atnoonbooks
D25	AUDIENSORI
J19	BALCONY
I9	Balgeunmirae
J19	Baume à L'âme
I6	BIR Publishing
H22	bobbook
I1	Bombom Publishing Co
J6	Bomgaeul book
J7	bookgoodcome
I5	BookKiss
G30	bookpia LuckyHands
J12	Bookstory
H4	Bookswage Bookers
G3	bread
G16	BulkwangMedia
J19	BYEOLBITDEUL
J19	byeolcheck
J19	cacaca on the shore
H23	CALM VOICE SOCIETY
I12	Camelbooks
J19	CASESTUDY
B1	Centro Regional para el Fomento del Libro en America Latina y el Caribe - CERLALC
J19	Chaeg
K10	Charliebook
J17	CHARMDOL
H32	Cheongmi Publishing Company
B11	Chiara Tognetti Rights Agency
B23	China National Publications Import & Export (Group)Co.Ltd.
G23	Chungmapyo
H24	CM dictionary Publishing Co.
L10	crayonhouse
J19	cucurrucucu
B9	Cultural Service of the Embassy of France in Korea
D19	DAEWON CI
H21	Danchu Press
G12	Danielstone Publishing
G1	DASANBOOKS
J19	dasibookshop
J19	Datz Press
G27	dawnsense
G7	designEUM

K9	DMPBOOKS
H30	DNA DesignStudio
K3	doban press
J19	doorspress
J14	dreambooks
K13	Dreaming Star Bookshop
H2	dreamingkite
F5	EASTASIA Publishing Co
J19	Editions Jean Moulin
I16	egowriting
B19	Embassy of Canada
G19	Esangbooks
F17	EUM Publishing House
D1	EunHaengNaMu Publishing company
J19	Fascicles Publishing
J19	Feminist Designer Social Club (FDSC)
J19	FFL
J19	FICTIONDLE
J4	FlyingStar Books
B9	France BIEF - International Office for French Publishing
B10	Frankfurter Buchmesse GmbH
J19	GARM Magazine
G20	gbbbooks
J19	GhostBooks
L9	GILBUT
G9	GimmYoung Publishers Inc
I2	Gloyeon
G31	GONGYEGA
L8	GOOD INTERNATIONAL
H7	GOZKNOCK ENT
H13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J19	HAEHAEBOOKS
D15	Haksan Publishing co
E19	HANBIT MEDIA, INC
G21	Hanghae publishers co
I23	Hanok Magazine
I7	Hansol Soobook
G24	herebook
I11	Humanist Publishing Group Inc
I22	HYANG Publishing House
G28	hyohyung
L6	I screamedu
J19	IANNBOOKS
J19	IMSIJEBONSO
C20	IWINGTV
I24	iyagikot
I20	JAKGA PUBLISHING CO
J19	JJOKKPRESS
G26	Kaesong Cultural Center
K17	kenekid korea
L5	KINDERLAND
J19	KKAMANKE
I3	KONG Publishing Company
H1	Korea Academy Publishing Association
E9	Korea Christian Publishers Association
F25	Korea Foundation
F20	Korea Magazine Association
K4	Korean Library Association
I13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F9 KOREAN PUBLISHERS
COOPERATIVE

G13 Korean Science Technology
Publishers Association

I19 kugil media

H27 KUMRIM

J19 Madtale Co.

J19 Martianstory

F14 Maumsanchaek

J19 Mediaus

K7 mindbridge publisher

C9 Minumsa

G25 Moksu Publishing Company

J19 mountain.egg

E1 munhakhongne

E25 National Library of Korea

K1 NIE PRESS

J2 noransangsang

J19 OOMZICC PUBLISHER

J5 Orange Communications

J15 pagijong publisher

H25 Phoenix and Company

L15 PLATFORM P

J19 pocketpoem

J19 POPOPO

J19 rasunpress

G4 Reading Cat

H26 Red Entertainment

D9 Safehouse

C1 Sahoipyounghon Publishing

J16 sangsangplayground

G5 Sanzini

G11 Science Content Group Galdar

B16 Sefsafa Publishing & culture

J13 selfQnA edge

J19 sentenceandscenes

K11 Seoul CHAEKBOGO

K6 SISA TNE

K15 Sloth Island

H29 Solid Publishing

K5 Somebooks

J19 sompress

C19 SOMYMEIDA Inc

J1 Springsunshine Publishing Co

J19 SUPERELLIPSE

J19 tampress

J19 Textpress

F1 The Association of Korean
University Presses

G6 The Dolls Hotel

H5 The Korean Publishing
Foundation

B15 The Old Lion Publishing House

I17 Theforestbook

H31 THEORIA

F15 THINK

G22 Thundercomic

F13 Tiramisu The Book

K16 UNJUSA

H19 unplanned earth

H6 uupress

K12 Vacance Hintoki Press

B12 Verlag Kiepenheuer & Witsch

J19 warm gray and blue

I21 Whos Got My Tail

F21 WJCA

J19 Woodpark Picture Books

I25 Woorinabi Publishing Co

H12 woorischool

K11 Woowa Brothers Corp

H11 workroom press

G32 Yaong Seoga

J9 YELLOWPIG

J11 Yeolim CNP

K8 YEOYODANG Publishing Co

I4 YGelli Domabaem Books

I26 YUN edition

H28 zicondesign

J19 ㅉang